



고진영 프로

<http://www.underarmour.co.kr>

【언더아머 취급점】 강남직영점 | 청담직영점 | 신세계백화점 | 현대백화점 | 롯데백화점 | 대전세이백화점

KLPGA members

KLPGA

members

2014 vol.18 8월호

COVER STORY

잘~
컷다.
김효주!

김효주 인터뷰

TOUR PREVIEW

August

KLPGA TOUR

RISING STAR

부족한
2%,
열정으로
채운다

윤선정 인터뷰

FOCUS

필드 밖,
세상에서의
게임

다우아이엔디
대표이사 정명인

SPECIAL

스폰서와 선수

Sponsor & Player

선수와 스폰서는
프로세계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존의 관계로 스폰서가
원하는 프로선수의
자질에 대해 알아본다.



무엇이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끄는가

점점 열기를 더해가는
KLPGA 투어의
높은 시청률의
요인을 알아본다.

KLPGA 멤버십 매거진 2014년 8월호



(주) 이동수 F&G 대리점 문의 : 02)3218-4003 www.lee dongsoogolf.co.kr, www.lee dongsooshop.com

KLPGA TOUR 2014 SPONSORS & PARTNERS

KLPGA를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발전하는 KLPGA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규 투어 타이틀 스폰서



드림 · 점프 · 시니어 투어 타이틀 스폰서



마케팅 파트너



칫솔의 혁명! 껌, 가글, 그리고 씹는 칫솔

‘물’이 필요없는 기능성 1회용 칫솔

무설탕·천연 자일리톨

자일리톨과 스피어민트가 충전되어 있으므로 칫솔을 치아와 혀를 이용해서 치아와 잇몸을 문지르면 칫솔질한 것 같은 상쾌함과 개운함을 느낄 수 있는 기능성 일회용 칫솔입니다.

물이 필요없는 기능성 1회용 칫솔

- 치약이나 물, 가글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껌을 씹거나 가글을 할 때의 불편함과 사용 후 개운함을 느끼지 못해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좋습니다.
- 미세하게 가공된 기능성 특수 칫솔모로 치아와 잇몸을 마사지해줍니다.
- 강력한 살균, 항균력으로 제작된 특수 칫솔모는 잇몸질환을 예방해줍니다.
- FDA에서 인증된 원자재와 천연 자일리톨을 사용하였습니다.



제조원 **Eden (주)에덴 21**
www.eden21.net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센텀15타워 1508호)
T. (051)526-3010 F. (051)780-8009

 식사 후에
  여행할 때
  운전할 때
  음주 후에
  운동할 때
  상담할 때
  입원 중에

Contents

KLPGA 멤버십 매거진 2014년 8월호



18



22



26



42

04

투어스케줄 | 2014 정규투어, 드림투어, 점프투어, 시니어투어 스케줄

08

투어프리뷰 | AUGUST KLPGA TOUR

12

KLPGA 뉴스 | KLPGA 주요 뉴스 및 공지사항

20

커버 스토리 | 최상의 샷 감각으로 '기아자동차 제28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와 '금호타이어 여자오픈'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한 김효주 인터뷰

24

라이징 스타 | 'KLPGA 2014 카이도골프·군산CC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6차전'에서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을 차지한 윤선정을 만나다.

26

스페셜 | 선수와 스폰서는 프로세계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존의 관계로 스폰서가 원하는 프로선수의 자질에 대해 알아본다.

30

홍보모델 | 2014 제6대 KLPGA 홍보모델 전인지, 허윤경 스튜디오 촬영사진

36

스폰서 | 국내 최초의 산유국과 원유 소비국 간 합작 회사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에스-오일

38

베스트 포토 | KLPGA투어 박준석 공식사진가자가 뽑은 베스트 명장면

42

포커스 | 다우아이엔디 대표이사로, 스포츠 마케팅 전문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며 투어프로로서의 못 다 이룬 골프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정명인 인터뷰

46

건강한 골프 | 솔병원 나영무 원장에게 듣는 골프 크리닉

48

뷰티인포 | 토니모리 메이크업 제안

50

명예기자 | KLPGA 명예기자들의 기획기사

52

골프 룰 | 정창기 경기위원장의 골프 룰

53

파고다스타의 생활회화 | 진돈바꾸기 편

54

멤버스 서비스 | 회원혜택과 회원동정

발행일 : 2014년 7월 25일 VOL.18호

발행인 : 강춘자

발행처 :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85길 13(대치동)
송석빌딩 8층

TEL : 02-587-2929 FAX : 02-539-6003

www.klpga.com

2014년 8월의 주요 일정 및 행사안내

AUGUST 2014

MON	TUE	WED	THU	FRI	SAT	SUN
28	29	30	31	1	2	3
	KLPGA 2014 Volvik · CENTURY21CC 시니어투어 8차전 (센추리21CC)		KLPGA 2014 카이도골프 · 그랜드CC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10차전 (그랜드CC)			
				한화금융 클래식 2014 (골든베이)		
	KLPGA 2014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시드순위전 (신안CC)					
4	5	6	7	8	9	10
	신입 티칭회원 입문교육 (동원 리더스 아카데미)					
	KLPGA 2014 Kangsan · 카이도골프 드림투어 시드순위전 (센추리21CC)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 (인터불고)		
11	12	13	14	15	16	17
	KLPGA 2014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9차전 (신안CC)	KLPGA 2014 Kangsan · 카이도골프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11차전 (센추리21CC)				
				Nefs Masterpiece 2014 (힐드로사이)		
18	19	20	21	22	23	24
	KLPGA 2014 Kangsan · 카이도골프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12차전 (센추리21CC)	KLPGA 2014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10차전 (신안CC)				
				MBN 여자오픈 with ON OFF (더스타휴)		
25	26	27	28	29	30	31
	KLPGA 2014 Kangsan · 카이도골프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13차전 (센추리21CC)	KLPGA 2014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11차전 (신안CC)				
				2014 채리티 하이원리조트 오픈 (하이원)		

투어, 꿈을 향한 무한도전!

KLPGA 2014 TOUR SCHEDULE

대상포인트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종료시점

순 위	이 름	포인 트
1	김효주	261
2	김세영	165
3	장하나	164
4	고진영	163
5	이민영2	160

상금순위

순 위	이 름	상 금
1	김효주	470,173,351
2	장하나	288,196,938
3	백규정	267,747,714
4	허윤경	263,420,088
5	이민영2	242,624,370

신인상포인트

순 위	이 름	포인 트
1	백규정	882
2	김민선5	879
3	고진영	871
4	강예린	588
5	하민송	519

평균타수

순 위	이 름	평균타수
1	장하나	69.92
2	김효주	70.06
3	김민선5	70.94
4	고진영	71.03
5	김세영	71.11

평균퍼팅

순 위	이 름	평균퍼팅수
1	이승현	28.77
2	한승지	29.38
3	김현수	29.41
3	김보경	29.41
5	백규정	29.60

드라이브 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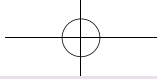
순 위	이 름	거 리
1	김세영	271.92
2	장하나	264.50
3	김민선5	264.25
4	한상희	263.31
5	김해림	262.09

4 APR

5 M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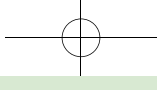
6 JUN

1			
2		제4회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일정 : 5월 2일 ~ 4일 장소 : 무주안성 총상금 : 5억 우승자 : 이승현(23, 우리투자증권)	
3			
4			
5			
6			제4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일정 : 6월 6일 ~ 8일 장소 : 롯데스카이힐 제주 총상금 : 5억 우승자 : 백규정(19, CJ오쇼핑)
7			
8			
9			
10	제7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일정 : 4월 10일 ~ 13일 장소 : 롯데스카이힐 제주 총상금 : 5억 우승자 : 이민영2(22)		
11			
12			
13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일정 : 6월 13일 ~ 15일 장소 : 엘리시안 제주 총상금 : 6억 우승자 : 전민지(20, 하이트진로)
14			
15			
16		2014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일정 : 5월 16일 ~ 18일 장소 : 일동레이크 총상금 : 5억 우승자 : 김세영(21, 미래에셋)	
17			
18			
19			기아자동차 제28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일정 : 6월 19일 ~ 22일 장소 : 베어즈베스트 청라 총상금 : 7억 우승자 : 김효주(19, 롯데)
20			
21			
22		2014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일정 : 5월 22일 ~ 25일 장소 : 라데나 총상금 : 6억 우승자 : 윤슬아(28, 파인테크닉스)	
23			
24			
25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14 일정 : 4월 25일 ~ 27일 장소 : 가야 총상금 : 5억 우승자 : 백규정(19, CJ오쇼핑)		
26			
27			
28			
29			
30		E1 채리티 오픈 일정 : 5월 30일 ~ 6월 1일 장소 : 휘닉스스프링스 총상금 : 6억 우승자 : 허윤경(24, SBI저축은행)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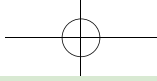


7 JUL	8 AUG	9 SEP	10 OCT	11 NOV	12 DEC
	한화금융 클래식 2014 일정 : 7월 31일 ~ 8월 3일 장소 : 골든베이 총상금 : 12억			서울경제 여자오픈 일정 : 10월 31일 ~ 11월 2일 장소 : 미정 총상금 : 5억	
금호타이어 여자오픈 일정 : 7월 4일 ~ 6일 장소 : 웨이하이 포인트 총상금 : 5억 우승자 : 김효주(19, 롯데)			러시앤캐시 행복나눔 클래식 일정 : 10월 3일 ~ 5일 장소 : 솔모로 총상금 : 6억		
				ADT CAPS Championship 2014 일정 : 11월 7일 ~ 9일 장소 : 미정 총상금 : 5억	한일여자프로골프 국가대항전 2014 일정 : 12월 6일 ~ 7일 장소 : 일본 미요시 CC 총상금 : 6,150 만엔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 일정 : 8월 8일 ~ 10일 장소 : 인터불고 총상금 : 5억		제15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일정 : 10월 9일 ~ 12일 장소 : 블루헤런 총상금 : 8억		
		볼빅 여자오픈 일정 : 9월 12일 ~ 14일 장소 : 미정 총상금 : 5억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 2014 일정 : 11월 14일 ~ 16일 장소 : 잭니클라우스 총상금 : 5억	2014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일정 : 12월 12일 ~ 14일 장소 : 중국 총상금 : 45 만불
	Nefs Masterpiece 2014 일정 : 8월 14일 ~ 17일 장소 : 힐드로사이 총상금 : 6억		LPGA KEB · Hana Bank Championship 일정 : 10월 17일 ~ 19일 장소 : SKY 72 총상금 : 200만불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일정 : 7월 18일 ~ 20일 장소 : 오라CC 총상금 : 5억 우승자 : 윤채영(27, 한화)		메트라이프 · 한국경제 제36회 KLPGA 챔피언십 일정 : 9월 18일 ~ 21일 장소 : 아일랜드 총상금 : 7억			
	MBN 여자오픈 with ON OFF 일정 : 8월 21일 ~ 24일 장소 : 더스타휴 총상금 : 5억				
			KB금융 STAR챔피언십 일정 : 10월 23일 ~ 26일 장소 : 남촌 총상금 : 7억		
		KDB대우증권 CLASSIC 2014 일정 : 9월 26일 ~ 28일 장소 : 휘닉스파크 총상금 : 6억			
	2014 채리티 하이원리조트 오픈 일정 : 8월 29일 ~ 31일 장소 : 하이원 총상금 : 8억				

*위 대회는 여러사정에 의해 상금, 일정 및 대회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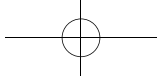


	4 APR	5 MAY	6 JUN	7 JUL
1	 드림투어 점프투어 시니어투어 일정 			
2				KLPGA 2014 카이도골프 · 그랜드CC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7차전 일정 : 7월 2일 ~ 3일 장소 : 그랜드CC 총상금 : 7천만원 우승자 : 박지영(18 · 하이원 리조트)
3				
4				
5				
6				
7		KLPGA 2014 카이도골프 · 군산CC 드림투어 4차전 일정 : 5월 7일 ~ 8일 장소 : 군산컨트리클럽 총상금 : 7천만원 우승자 : 이선애(25)		KLPGA 2014 보성CC · 카스코배 점프투어 8차전 일정 : 7월 7일 ~ 8일 장소 : 보성CC 총상금 : 3천만원 우승자 : 김보령(19 · 불빅)
8		KLPGA 2014 그랜드 · CAPTAIN SANTA 점프투어 1차전 일정 : 5월 8일 ~ 9일 장소 : 그랜드CC 총상금 : 3천만원 우승자 : 김다은(18 · 롯데마트)		
9	KLPGA 2014 카이도골프 ·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 일정 : 4월 9일 ~ 10일 장소 : 군산컨트리클럽 총상금 : 7천만원 우승자 : 이연주(28 · 캘러웨이)		KLPGA 2014 CENTURY21CC · Volvik 시니어투어 5차전 일정 : 6월 9일 ~ 10일 장소 : 센추리21 총상금 : 4천만원 우승자 : 김희정(43 · 야마하)	
10				
11				
12		KLPGA 2014 그랜드 · CAPTAIN SANTA 점프투어 2차전 일정 : 5월 12일 ~ 13일 장소 : 그랜드CC 총상금 : 3천만원 우승자 : 김보령(19 · 부산골프고2)	KLPGA 2014 CENTURY21CC · Volvik 시니어투어 3차전 일정 : 5월 12일 ~ 13일 장소 : 센추리21 총상금 : 4천만원 우승자 : 홍희선(43)	
13				
14		KLPGA 2014 카이도골프 · 군산CC 드림투어 5차전 일정 : 5월 14일 ~ 15일 장소 : 군산컨트리클럽 총상금 : 7천만원 우승자 : 양채린(19)		
15	KLPGA 2014 카이도골프 · 군산CC 드림투어 2차전 일정 : 4월 15일 ~ 16일 장소 : 군산컨트리클럽 총상금 : 7천만원 우승자 : 김빛나(25)			
16				
17	KLPGA 2014 CENTURY21CC · Volvik 시니어투어 1차전 일정 : 4월 17일 ~ 18일 장소 : 센추리21 총상금 : 4천만원 우승자 : 정일미(42 · 엔터팩)		KLPGA 2014 보성CC · 카스코배 점프투어 5차전 일정 : 6월 17일 ~ 18일 장소 : 보성CC 총상금 : 3천만원 우승자 : 손승희(18)	
18				
19			KLPGA 2014 카이도골프 · 그랜드CC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6차전 일정 : 6월 19일 ~ 20일 장소 : 그랜드컨트리클럽 총상금 : 7천만원 우승자 : 윤선정(20 · 토니모리)	
20				
21				KLPGA 2014 Volvik · CENTURY21CC 시니어투어 7차전 일정 : 7월 21일 ~ 22일 장소 : 센추리21 총상금 : 4천만원 우승자 : 김희정(43 · 야마하)
22		KLPGA 2014 그랜드 · CAPTAIN SANTA 점프투어 3차전 일정 : 5월 22일 ~ 23일 장소 : 그랜드CC 총상금 : 3천만원 우승자 : 박지영(18 · 하이원리조트)		KLPGA 2014 카이도골프 · 그랜드CC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8차전 일정 : 7월 22일 ~ 23일 장소 : 그랜드CC 총상금 : 7천만원 우승자 : 아주미(19)
23			KLPGA 2014 Volvik · CENTURY21CC 시니어투어 6차전 일정 : 6월 23일 ~ 24일 장소 : 센추리21 총상금 : 4천만원 우승자 : 이광순(45 · 불빅)	
24				KLPGA 2014 카이도골프 · 그랜드CC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9차전 일정 : 7월 24일 ~ 25일 장소 : 그랜드CC 총상금 : 7천만원 우승자 : 양승애(25)
25			KLPGA 2014 보성CC · 카스코배 점프투어 6차전 일정 : 6월 25일 ~ 26일 장소 : 보성CC 총상금 : 3천만원 우승자 : 손주희(18)	
26				
27		KLPGA 2014 그랜드 · CAPTAIN SANTA 점프투어 4차전 일정 : 5월 27일 ~ 28일 장소 : 그랜드CC 총상금 : 3천만원 우승자 : 안소현(19)		
28				
29	KLPGA 2014 카이도골프 · 군산CC 드림투어 3차전 일정 : 4월 29일 ~ 30일 장소 : 군산컨트리클럽 총상금 : 7천만원 우승자 : 이선애(25)	KLPGA 2014 CENTURY21CC · Volvik 시니어투어 2차전 일정 : 4월 29일 ~ 30일 장소 : 센추리21 총상금 : 4천만원 우승자 : 이광순(45 · 불빅)	KLPGA 2014 CENTURY21CC · Volvik 시니어투어 4차전 일정 : 5월 29일 ~ 30일 장소 : 센추리21 총상금 : 4천만원 우승자 : 김희정(43 · 야마하)	KLPGA 2014 Volvik · CENTURY21CC 시니어투어 8차전 일정 : 7월 29일 ~ 30일 장소 : 센추리21 총상금 : 4천만원
30				
31				KLPGA 2014 카이도골프 · 그랜드CC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10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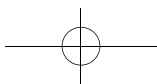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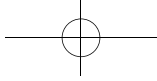
	8 AUG	9 SEP	10 OCT		11 NOV
1	일정 : 7월 31일 ~ 8월 1일 장소 : 그랜드CC 총상금 : 7천만원	KLPGA 2014 Kagsan · 카이도골프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14차전 일정 : 9월 1일 ~ 2일 장소 : 센추리21 총상금 : 7천만원	KLPGA 2014 무안CC · 카이도골프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16차전 일정 : 10월 1일 ~ 2일 장소 : 무안CC 총상금 : 7천만원		
2					
3		KLPGA 2014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12차전 일정 : 9월 3일 ~ 4일 장소 : 신안CC 총상금 : 3천만원			KLPGA 2014 무안CC · 카이도골프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20차전 일정 : 11월 3일 ~ 4일 장소 : 무안CC 총상금 : 7천만원
4					
5					
6					
7			KLPGA 2014 무안CC · 카이도골프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17차전 일정 : 10월 7일 ~ 8일 장소 : 무안CC 총상금 : 7천만원	KLPGA 2014 그랜드 · 삼대인 점프투어 15차전 일정 : 10월 7일 ~ 8일 장소 : 그랜드CC 총상금 : 3천만원	
8					
9					
10					
11	KLPGA 2014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9차전 일정 : 8월 11일 ~ 12일 장소 : 신안CC 총상금 : 3천만원	KLPGA 2014 Kagsan · 카이도골프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15차전 일정 : 9월 11일 ~ 12일 장소 : 센추리21 총상금 : 7천만원			
12					
13	KLPGA 2014 Kagsan · 카이도골프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11차전 일정 : 8월 13일 ~ 14일 장소 : 센추리21 총상금 : 7천만원				
14					
15		KLPGA 2014 Volvik · CENTURY21CC 시니어투어 9차전 일정 : 9월 15일 ~ 16일 장소 : 센추리21 총상금 : 4천만원	KLPGA 2014 무안CC · 카이도골프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18차전 일정 : 10월 15일 ~ 16일 장소 : 무안CC 총상금 : 7천만원		
16					
17					
18	KLPGA 2014 Kagsan · 카이도골프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12차전 일정 : 8월 18일 ~ 19일 장소 : 센추리21 총상금 : 7천만원				
19					
20	KLPGA 2014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10차전 일정 : 8월 20일 ~ 21일 장소 : 신안CC 총상금 : 3천만원		KLPGA 2014 그랜드 · 삼대인 점프투어 16차전 일정 : 10월 20일 ~ 21일 장소 : 그랜드CC 총상금 : 3천만원		
21					
22		KLPGA 2014 Volvik · CENTURY21CC 시니어투어 10차전 일정 : 9월 22일 ~ 23일 장소 : 센추리21 총상금 : 4천만원	KLPGA 2014 무안CC · 카이도골프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19차전 일정 : 10월 22일 ~ 23일 장소 : 무안CC 총상금 : 7천만원		
23					
24		KLPGA 2014 그랜드 · 삼대인 점프투어 13차전 일정 : 9월 24일 ~ 25일 장소 : 그랜드CC 총상금 : 3천만원			
25	KLPGA 2014 Kagsan · 카이도골프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13차전 일정 : 8월 25일 ~ 26일 장소 : 센추리21 총상금 : 7천만원				
26					
27	KLPGA 2014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11차전 일정 : 8월 27일 ~ 28일 장소 : 신안CC 총상금 : 3천만원				
28					* 투어별 색인표
29		KLPGA 2014 그랜드 · 삼대인 점프투어 14차전 일정 : 9월 29일 ~ 30일 장소 : 그랜드CC 총상금 : 3천만원			드림투어
30					
31					시니어투어

* 위 대회는 여러사정에 의해 상금, 일정 및 대회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투어 프리뷰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이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에 걸쳐 경북의 ‘인터불고 경산CC’에서 개최된다. 대회명의 ‘허니’는 교촌치킨의 메뉴 중 하나인 ‘허니시리즈’를 지칭하며 교촌과 여자골프 팬들에게 달콤한 즐거움을 선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회는 인터불고 경산CC 중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 받는 마운틴 코스와 밸리 코스에서 개최된다. 밸리 코스는 연못과 벙커, 계류가 조화를 이루고, 마운틴 코스는 도전적인 코스로 힘과 정교함을 갖춘 골퍼들에게 선호도가 높다.

창설대회로 치러지는 만큼 초대 챔피언의 자리를 놓고 그 어느 대회보다 선수들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특히 이정은5는 자신의 후원사가 주최하는 창설대회인 만큼 각오도 남다르다. 투어 통산 4승을 올린 그는 지난해 비록 우승은 없었지만 준우승만 두 번을 할 만큼 우승권에 가깝게 있다. 최근 고참 선수들의 선전도 흥미롭다. 풍부한 경기 경험을 가진 베테랑 선수와 패기로 무장된 루키들 간의 신·구 맞대결이 예상되는 이 대회는 치맥(치킨과 맥주)과 치샐(치킨 샐러드)을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대회가 될 전망이다.



코스소개

‘인터불고 경산CC’는 대구의 팔공산과 함께 경북지역 명산 중의 명산으로 꼽히는 비슬산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총 27홀로 들어선 인터불고 경산CC는 스카이, 마운틴, 밸리의 3개 코스로 나뉘었다. 각 코스는 지형과 지세에 따라 서로 다른 개성을 부여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분위기나 색채의 통일성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스카이크스는 시원한 조망을 만끽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마운틴코스는 수계가 없이 울창한 수림대 사이로 그린을 공략하는 다소 거친 이미지의 코스다. 밸리코스는 숨어있는 계류가 나타나면서 진행되는 코스로 호수들이 특히 아름다워 각 그린들과 잘 어울리도록 설계되었다.

이들 코스는 18홀 파72의 국제규격인 6,842야드 이상으로 챔피언십 유치가 가능한 대형 규모이며, 거리와 파의 구성에도 다양함을 갖춰 홀마다 레벨과 시야를 달리한 라운드형 티잉그라운드로 조성됐다.

넵스 마스터피스 2014



넵스 마스터피스 2014

가구 전문 기업 넵스가 개최하는 '넵스 마스터피스 2014'가 오는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홍천 힐드로사이 CC에서 개최된다. 해마다 골프와 아트, 자연을 주제로 한 작품 전시로 화제를 일으켰던 넵스 마스터피스는, 올해는 서울문화재단에 소속된 신당창작아카데미 신진작가 10인과의 콜라보레이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흔적을 쫓아서(Tracing Traces)'를 주제로, 드넓은 골프장을 캔버스 삼아 대형 설치 작품들이 전시된다.

총상금 6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 대회에 디펜딩 챔피언은 김지현2이며 JLPGA 투어 니치레이 레이디스 우승자 신지애와 7월 현재 대상과 상금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김효주, 넵스 소속의 고진영, 김다나, 박성현 등이 출전하여 치열한 우승컵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넵스 마스터피스의 우승 트로피는 독특하게 작가가 제작하는 '아트 트로피'로 유명하다. 올해는 신당창작아카데미 입주작가인 송진수 작가의 철사 드로잉 아트 트로피가 수여될 예정으로, 벌써부터 우승자가 어떤 세리머니를 펼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코스소개

'넵스 마스터피스 2014'가 열리는 '힐드로사이 컨트리클럽'은 2011년 7월, 회원제 골프장으로 정식 오픈했다. 68만평의 대지 위에 18홀로 구성된 이 골프장은 7,423야드에 달하는 긴 전장을 자랑하는 토너먼트 코스다. '신이 내린 신성한 대지'라는 의미의 힐드로사이 컨트리클럽은 주변 산들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수려한 산수가 조화를 이루어, 매 홀마다 다른 느낌의 골프 묘미를 느낄 수 있게끔 코스 설계가 뛰어나다.

더구나 산악형 골프장임에도 불구하고 계단식의 단순 코스 설계에서 벗어나 평지에 가깝게 만들어 14개의 클럽을 모두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모든 티그라운드에서 매 홀의 그린이 보이고, 페어웨이 평균 폭도 75미터를 기반으로 설계해 대평원을 연상시키는 코스 레이아웃으로 장타자에게 유리하다.

MBN 여자오픈 with ON OFF



MBN 여자오픈 with ON OFF

MBN과 ON OFF가 공동 주최하는 이 대회는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4라운드 72홀 스트로크로 진행된다. 2002년 '김영주 패션 인비테이셔널'을 시작으로 창설된 이 대회는 2012년부터 MBN과 공동으로 개최됐었고 올해에는 MBN이 주체가 돼 골프용품업체인 ON OFF와 함께 대회를 개최한다. 전년도 챔피언 김하늘의 부활의 샷을 기대한다면 이 대회를 주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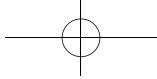
지난해 그는 시즌 초반 극심한 부진을 겪다 이 대회에서 우승하며 화려하게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었다. 올 시즌에도 '2013 현대차 중국여자오픈'과 '2014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아깝게 준우승을 차지하며 호시탐탐 우승을 노리는 그다. 여기에 최근 급상승세를 타고 있는 중견 골퍼들의 활약과 치열한 신인왕 경쟁을 벌이고 있는 루키들의 대결이 또 다른 볼거리다. 쉽사리 우승자를 점치기 어려운 2014년도 KPGA투어에서 우승 트로피의 향방은 누구의 몫일지 자못 궁금하다.



코스소개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에 위치한 더스타휴 CC는 지난 5월 그랜드 오픈한 18홀의 회원제 골프장이다. 45만평 용지 위에 18홀만 고즈넉하게 들어서 있어 인간 세계의 흔적 같은 것은 찾으려고 해야 찾아볼 수 없으니 깊은 숲속에 살포시 올려놓은 또 하나의 자연 침터다. 코스 어디에서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운무와 안개, 산봉우리들이 겹겹이 그려놓는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할 만큼 경관이 수려하다. 주위에 있는 모든 높고 낮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서서 오직 한 곳 더스타휴 CC를 바라보고 있다.

더스타휴 CC의 한 홀 한 홀은 다른 홀과 완전히 분리된 느낌이다. 거의 모든 홀에서 옆 홀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색도시에 지친 영혼의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곳! 바로 더스타휴 CC다.



2014 채리티 하이원리조트 오픈



2014 채리티 하이원리조트 오픈

이 대회는 2008년부터 2010까지 '하이원컵 SBS 채리티 여자오픈'이란 타이틀로 개최되었다. 그 후 잠시 중단 됐다 '2014 채리티 하이원리조트 오픈'으로 새 단장을 마치고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하이원 CC에서 개최된다. 2008년 초대 챔피언 서희경을 비롯, 유소연, 안신애 등의 눈부신 스타를 배출해낸 본 대회는 총상금액도 8억원에 이를 만큼 매머드급 대회로 재창설 됐다. 국내 최초로 채리티 콘셉트를 도입해 그동안 강원지역의 소외계층을 도왔으며 총상금액의 10%를 기부해 시각 장애인 골퍼 체험, 골프 꿈나무 초청 하이원 러브데이 등 각종 이벤트로 골프의 대중화를 선도했다. 또한 고원지대의 특성을 살린 사랑의 장타 대결을 통해 우승상금 전액을 채리티 모금으로 전환하는 등 채리티에 초점을 맞췄다. 이처럼 뜻깊은 자선골프 대회인 만큼 대회에 임하는 선수들의 각오도 남다르다. 치열한 우승경쟁의 승부사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의 전도사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회이기 때문이다.



코스소개

해발 1,137미터에 위치한 하이원 CC는 파 72, 전장 6,592미터의 18홀 퍼블릭 골프장이다.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보여주는 양잔디와 모던하면서도 섬세한 코스 설계는 골퍼의 도전욕구를 자극하여 흥미롭고 다채로운 라운드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

고원지대에 조성된 만큼 빼어난 자연경관과 코스 레이아웃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넓은 고원에서 세상을 굽어보며 라운드 하는 색다른 모험이 골퍼들을 매료 시키고, 이른 새벽 삼림과 맑은 공기, 시야 가득 펼쳐지는 태백산맥의 능선과 천혜의 자연환경은 그야말로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공기 저항이 적은 고원의 산악형 코스이기에 장쾌한 드라이버 샷이 가능해 이제껏 국내 다른 골프장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골퍼의 묘미를 배가시킨다. 한여름에도 섭씨 25도를 넘지 않는 백두대간의 시원한 바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AUGUST KLPGA T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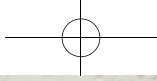


8월 온 라인 참가신청안내



2014 • AUGU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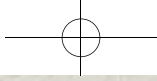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7	28	29	30	31	1	2
					2014 KLPGA 정규투어 (9월대회신청) 점프투어 3차대회(9~12차전) - 시드순위자	
3	4	5	6	7	8	9
					드림투어 3차대회(11~15차전) - 시드순위자	
10	11	12	13	14	15	16
점프투어 시드전 4차(13~16차전)						
17	18	19	20	21	22	23
드림투어 시드전 4차(16~20차전) 09. 01(월) 23시까지						
24	25	26	27	28	29	30
31			점프투어 4차대회(13~16차전) - 시드권자 09. 10(수) 23시까지			



2014 KLPGA 정규투어 대회별 참가인원 및 프로암, 공식연습일 일정 공지

no.	월	대회명	장소	프로암	공식연습일	본대회	라운드	인원
1	4월	제7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롯데스카이힐제주	없음	4월 9일(수)	4.10 ~ 4.13	4R	132명
2		넥센 · 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14	가야	없음	4월 24일(목)	4.25 ~ 4.27	3R	120명
3	5월	제4회 KG · 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무주 안성	5월 1일(목)	4월 30일(수)	5.2 ~ 5.4	3R	120명
4		2014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일동레이크	없음	5월 15일(목)	5.16 ~ 5.18	3R	132명
5		2014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라데나	없음	5월 21일(수)	5.22 ~ 5.25	4R	64명
6		E1 채리티 오픈	휘닉스스프링스	5월 27일(화), 28일(수)	5월 29일(목)	5.30 ~ 6.1	3R	144명
7	6월	제4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롯데스카이힐제주	6월 5일(목)	6월 4일(수)	6.6 ~ 6.8	3R	132명
8		제8회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엘리시안 제주	6월 12일(목)	6월 11일(수)	6.13 ~ 6.15	3R	120명
9		기아자동차 제28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베어즈베스트 청라	6월 18일(수)	6월 17일(화)	6.19 ~ 6.22	4R	144명
10	7월	금호타이어 여자오픈	웨이하이포인트	없음	7월 1일(화), 2일(수)	7.4 ~ 7.6	3R	126명
11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오라	7월 16일(수)	7월 17일(목)	7.18 ~ 7.20	3R	132명
12		한화금융 클래식 2014	골든베이	7월 28일(월), 29일(화)	자율 연습	7.31 ~ 8.3	4R	132명
13	8월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	인터볼고 경산	8월 6일(수)	8월 7일(목)	8.8 ~ 8.10	3R	120명
14		Nefs Masterpiece 2014	힐드로사이	없음	8월 13일(수)	8.14 ~ 8.17	4R	120명
15		MBN 여자오픈 with ON OFF	더스타휴	8월 20일(수)	8월 19일(화)	8.21 ~ 8.24	4R	120명
16		2014 채리티 하이원리조트 오픈	하이원	8월 27일(수)	8월 28일(목)	8.29 ~ 8.31	3R	132명 or 144명
17	9월	볼빅 여자오픈	미정	9월 11일(목)	9월 10일(수)	9.12 ~ 9.14	3R	132명
18		메트라이프 · 한국경제 제36회 KLPGA 챔피언십	아일랜드	9월 15일(월), 16일(화)	9월 17일(수)	9.18 ~ 9.21	4R	미정
19		KDB대우증권 CLASSIC 2014	휘닉스파크	9월 24일(수), 25일(목)	9월 23일(화)	9.26 ~ 9.28	3R	120명
20	10월	러시앤캐시 행복나눔 클래식	솔모로	10월 1일(수)	10월 2일(목)	10.3 ~ 10.5	3R	120명
21		제15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블루헤런	없음	10월 8일(수)	10.9 ~ 10.12	4R	108명
22		KB금융 STAR챔피언십	남촌	10월 21일(화)	10월 22일(수)	10.23 ~ 10.26	4R	108명
23		서울경제 여자오픈	미정	10월 29일(수)	10월 30일(목)	10.31 ~ 11.2	3R	108명
24	11월	ADT CAPS Championship 2014	미정	11월 4일(화), 5일(수)	11월 6일(목)	11.7 ~ 11.9	3R	전년과 동일
25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 2014	잭니클라우스	11월 12일(수)	11월 13일(목)	11.14 ~ 11.16	3R	전년과 동일
26	12월	한일여자프로골프 국가대항전 2014	일본 미요시 CC	없음	12월 4일(목), 5일(금)	12.6 ~ 12.7	-	13명
27		2014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중국	12월 11일(목)	12월 10일(수)	12.12 ~ 12.14	3R	40명 +초청

상기 사항은 여러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합니다.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메인 프로암 날짜입니다.)



대회 기권자에 대한 규정 강화 및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기타. 가. 대회기간 중 기권을 하고자 하는 선수는 출발 시간표 발표 전에 반드시 대회 조직위원회에 별도 비치된 소정 양식에 의거 기권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가. 대회기간 중 기권을 하고자 하는 선수는 반드시 대회조직위원회에 별도 비치된 소정 양식에 의거 기권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상당히 고의적인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 해당 선수의 징계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 KLPGA 각 투어별 대회요강에 명시 ※ 실시시기 : 즉시

점프투어 출전자격리스트 변경의 건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4. 점프투어 각 차수별대회 상금랭킹 10위까지 기록자 - 다음 차수대회 시드권 부여 - 단, 점프투어 각 차수별 대회 상금랭킹 10위 이내자 중 정회원으로 승격한 경우 시드권은 자동소멸 됨.	4. 점프투어 각 차수별대회 상금랭킹 30위까지 기록자 - 다음 차수대회 시드권 부여 - 단, 점프투어 각 차수별 대회 상금랭킹 30위 이내자 중 정회원으로 승격한 경우 시드권은 자동소멸 됨.	※ 실시시기 : 즉시

KLPGA 하반기 온라인 참가신청 일정 변경 안내

대 회 명	기존 온라인 참가신청 일정	변경 온라인 참가신청 일정	비 고
드림투어 3차대회 (11~15차전) - 시드순위자	2014. 08. 08(금) 15시 ~ 08. 11(월) 12시	2014. 08. 07(목) 15시 ~ 08. 11(월) 12시	※ 온라인 참가신청 일정 변경
점프투어 4차대회 (13~16차전) - 시드권자	2014. 08. 20(수) 10시 ~ 09. 02(화) 23시	2014. 08. 27(수) 10시 ~ 09. 10(수) 23시	
드림투어 4차대회 (16~20차전) - 시드권자	2014. 08. 27(수) 10시 ~ 09. 11(목) 23시	2014. 09. 03(수) 10시 ~ 09. 18(목) 23시	

‘2014 KLPGA 신입 티칭회원 입문교육’ 참석 안내

- 행사명 : 2014 KLPGA 신입 티칭회원 입문교육
- 일정 : 2014년 8월 4일(월) ~ 8월 6일(수) / 2박 3일
- 장소 : 동원리더스 아카데미 Honor 홀 2층(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을 어석리)
- 참석대상 : 2014년 입회 신입 티칭회원 전원
- 준비물 : 신분증, 간소복, 세면도구 등
- 문의 : 업무지원팀 송창우 대리(T. 02-560-4422)

※ 정당한 사유 또는 상벌분과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유 외에 입문교육 미 입소시

티칭회원 자격 제한으로 인해 KLPGA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모든 대회(투어, 시드순위전 등)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악천후 시 대회진행 규정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가. 경기 순연의 처리규정 1) 1조라도 스코어접수를 한 경우 또는 마지막조가 9홀 이상 진행했을 경우 2) 대회요강에 따라 대회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 (예비일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3) 일출, 일몰등을 고려하여 다음 라운드 경기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4) 기타 대회조직위원회가 판단하여 경기 순연이 불가피한 경우 5) 경기 순연의 결정은 대회조직위원회 (경기분과위원회, 선수, 메인스폰서, 방송, 골프장, 협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 경기분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나. 경기 중지 및 재개 처리규정 1) 비, 안개, 번개, 황사, 기온, 풍속, 적설량등을 경기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일시중지, 재개등을 결정기로 한다. 2) 경기 중지 및 재개는 대회조직위원회와 상관없이 경기분과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이다. 다. 경기 라운드 취소의 처리규정 1) 첫조가 9홀 이상 종료하지 못한 경우 2) 마지막조가 티오프하지 못한 경우 3) 일출, 일몰등을 고려하여 도저히 라운드 성립이 불가능한 경우 4) 악천후로 인하여 정상적인 플레이로 경기분과위원회에서 인정키 어려운 경우 5) 기타 대회조직위원회가 판단하여 라운드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6) 경기 라운드 취소는 대회조직위원회 (경기분과위원회, 선수, 메인스폰서, 방송, 골프장, 협회)에서 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합의가 안되는 경우 경기분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2008년 4차 이사회 의결사항 ☞ 2009년 1월 1일부터 변경하여 실시하기로 함	가. 경기 순연의 처리규정 1) 1부 운영대회 : 한 조라도 스코어접수를 한 경우 또는 마지막조가 9홀 이상 진행했을 경우. 2) 1,2부(오전/오후) 운영대회 : 한 조라도 9홀 이상 진행 했을 경우 3) 대회요강에 따라 대회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 (예비일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4) 일출, 일몰등을 고려하여 다음 라운드 경기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5) 기타 대회조직위원회가 판단하여 경기 순연이 불가피한 경우 6) 경기 순연의 결정은 대회조직위원회 (경기분과위원회, 선수, 메인스폰서, 방송, 골프장, 협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 경기분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나. 경기 중지 및 재개 처리규정(변경 없음) 1) 비, 안개, 번개, 황사, 기온, 풍속, 적설량등을 경기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일시중지, 재개등을 결정기로 한다. 2) 경기 중지 및 재개는 대회조직위원회와 상관없이 경기분과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이다. 다. 경기 라운드 취소의 처리규정 1) 1부 운영대회 : 첫조가 9홀 이상 종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마지막조가 티오프하지 못한 경우 2) 1,2부(오전/오후) 운영대회 : 한 조도 9홀 이상 진행 하지 못했을 경우 3) 일출, 일몰등을 고려하여 도저히 라운드 성립이 불가능한 경우 4) 악천후로 인하여 정상적인 플레이로 경기분과위원회에서 인정키 어려운 경우 5) 기타 대회조직위원회가 판단하여 라운드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6) 경기 라운드 취소는 대회조직위원회 (경기분과위원회, 선수, 메인스폰서, 방송, 골프장, 협회)에서 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합의가 안되는 경우 경기분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실시시기 : 즉시	

2014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참가선수 골프연습장 및 숙소 이용안내

- 점프패키지 1 : 81,000원 (1박) / 1인 타석 120분 제공 / 1인 식사 2식 제공 / 2인실(침대2) 1실 제공
- 점프패키지 2 : 112,000원 (1박) / 2인 타석 120분 제공 / 2인 식사 2식 제공 / 2인실(침대2) 1실 제공
- 장소 : 신안컨트리클럽 골프연습장 내
- 예약방법 : 전화 / 방문예약 가능 (연습장 프론트 031-8046-0801~2)
 - 예약 확정은 선 결제 50,000원(1실/1박) 입금확인 후 확정됨(이용자명의로 입금) / 계좌이체 : 농협 237101-51-062975 신안종합레저(주)
 - 당일 취소시 선 결제금액은 환불이 불가함
 - ※ 참가자 문의가 많아 사전예약 접수바랍니다.
 - 연습장과 골프장간 셔틀버스 운행 예정입니다.
 - 티오프전 타석연습, 식사가 가능합니다.



금호타이어 여자오픈 김효주, 2개 대회 연속 우승!

중국 위해시에 위치한 웨이하이 포인트 호텔&골프리조트(파72/6,111)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여자오픈(총상금 5억 원, 우승상금 1억 원) 최종일, 김효주(19·롯데)가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김보경이 'E1 채리티오픈'과 '롯데칸타타 여자오픈'에서 2개 대회 연속 우승한 이후 약 1년 1개월 만이다.

최종라운드 첫 홀부터 버디를 잡은 김효주는 이어지는 2번홀(파5,500야드)과 4번홀(파3,170야드)에서 버디를 추가했으나 6번홀(파5,460야드)에서 58도 웨지로 한 세 번째 샷이 벅커로 빠지고, 3퍼트를 범하면서 더블 보기를 기록했다.

하지만 김효주는 전반 마지막 홀인 9번홀(파4,330야드)에서 또 다시 버디를 잡았고, 후반에는 버디 2개와 보기 1개를 묶어 오늘날 3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13언더파 203타(67-67-69)로 통산 3승째를 일궈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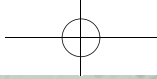
7타 차의 큰 차로 2위를 따돌린 김효주는 이번 우승으로 상금 순위 2위인 장하나(22·비씨카드)와의 격차를 약 1억 7천만 원까지 벌리며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김효주는 "2위와 타수 차가 많이 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여유 있는 상태로 최종라운드를 시작했지만 골프장 특성상 언제 스코어가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했다."고 말한 뒤, "6번홀에서 더블 보기를 했지만 기분이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언더파를 유지하자고 생각하고, 경기에도 크게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효주는 "이번 대회 우승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반기도 어떻게 될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오늘 샷이 후반 갈수록 흔들렸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우승을 몇 번 더 하고 싶다."고 목표를 말했다.

고진영(19·넵스)이 최종합계 6언더파 210타(72-69-69)로 단독 2위에 올랐고, 이민영(22)과 정희원(23·파인테크닉스)이 5언더파 211타로 공동 3위를 기록했다.

평산선(25)은 오늘 1타를 줄여 최종합계 3언더파 213타(66-76-71), 공동 7위로 외국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으로 경기를 마쳤다.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윤채영, 9시즌 만에 감격적인 첫 우승!

제주시에 위치한 오라 컨트리클럽(파72/6,522야드) 동코스, 서코스에서 열린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윤채영(27·한화)이 연장 접전 끝에 최종합계 11언더파 205타(70-66-69)로 초대 챔피언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로써 윤채영은 9시즌 만에 감격적인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2005년에 KLPGA 정회원으로 입회하고 2006년 정규투어에 데뷔한 후 160경기만에 거둔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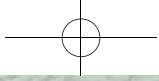
선두와 2타차 공동 3위로 최종라운드를 맞은 윤채영은 전반 2개의 버디를 잡아 내며 단독 선두에 올랐으나 후반 들어 장수연(20·롯데마트), 김해림(25·하이마트)의 거센 추격을 받으며 연장전에 돌입했다. 윤채영은 연장 첫 홀(18번홀/파4,358야드)에서 7번 아이언으로 한 세컨드샷을 핀 뒤 1미터 거리에 바짝 붙이며 버디를 기록, 승부에 종지부를 찍었다. 경기 후 윤채영은 "우승 후 부모님이 가장 생각났다. 부모님께서 나보다 더 첫 우승을 원했다. 안 울려고 했는데 사람들을 보고 축하를 받으니까 그 동안의 시간이 생각나서 눈물이 났다."라며 감격적인 소감을 밝혔다. 이어 "시즌 초마다 항상 올해는 첫 우승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는데 드디어 첫 우승을 했다. 이번에 전지훈련 갔다 오면서 플레이가 한층

성숙해졌다고 느껴서 올해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이제는 우승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독하게 연습했다."라고 말했다.

챔피언 조에서 경기했으나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윤채영은 "티박스에 올라가니 긴장도 안되고 편했다. 특히 쫓아가는 상황이었기에 편했다. 그냥 자신 있게 치자는 생각으로 했다."라고 경기 상황에 대해 밝혔다. 아직 우승을 못한 후배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다. 윤채영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우승이라는 생각을 하며 9년 동안 버텼다. 후배들도 긍정적으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윤채영은 "우승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들었다. 첫 우승을 하면서 자신감도 생겼다. 올 시즌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우승을 해보고 싶다."라며 밝게 웃었다. 한편, 박인비(26·KB금융그룹)은 3번홀(파3,175야드)에서 프로 데뷔 후 공식 대회에서 첫 홀인원을 기록하는 등 최종라운드에서만 5타를 줄여 최종합계 10언더파 206타(69-70-67) 공동 4위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전날 단독선두에 올랐던 홍란(28·삼천리)은 3타를 잃으며 최종합계 7언더파 209타(67-67-75)로 공동 13위에 머물렀다.



KLPGA 2014 카이도골프 · 그랜드CC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7차전 박지영, 13언더파 131타로 드림투어 첫 우승!



충청북도 청원군에 위치한 그랜드 컨트리클럽(파72/6,437야드) 남코스, 서코스에서 열린 'KLPGA 2014 카이도골프 · 그랜드CC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7차전'(총상금 7천만원, 우승상금 1천4백만 원)에서 박지영(18 · 하이원리조트)이 최종합계 13언더파 131타(62-69)로 드림투어 첫 우승을 신고했다.

첫날 10언더파 62타를 친 박지영은 2위 최민경(21)에 1타 앞선 단독 선두로 최종라운드를 맞았다. 전반에 버디 4개를 낚으며 상승세를 이어간 박지영은 후반에도 침착하게 파 행진을 벌였다. 17번홀(파3,177야드)에서 티샷 실수로 보기를 범하며 최민경에 한 타 차까지 쫓겼으나 18번 홀(파4,350야드)에서 파퍼트를 성공시키며 우승컵을 지켜 냈다.

'KLPGA 2014 그랜드 · CAPTAIN SANTA 점프투어 3차전'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둔 박지영은 지난달 열린 'KLPGA 2014 카이도골프 · 그랜드CC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6차전'을 통해 드림투어에 데뷔했다. 두 대회 만에 드림투어 우승컵마저 차지하며 무서운 신예임을 입증했다. 우승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박지영은 "1라운드에서 10언더파라는 좋은 성적을 올렸으나 2위 역시 9언더파를 기록 중이어서 우승에 대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드림투어 6차전에서 욕심을 부리다가 우승을 놓쳐서 오늘은 마음을 편하게 먹고 차분하게 경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샷이 안정적이었다. 공이 핀에 잘 붙어서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었다."라고 우승 요인을 밝혔다. 끝으로 박지영은 "드림투어 첫 승을 거뒀으니 다음 목표는 2승이다. 승수를 많이 쌓아서 내년에는 정규투어에 진출하고 싶다."라며 당찬 포부를 드러냈다.

KLPGA 2014 보성CC · 카스코배 점프투어 6차전 연장 접전 끝에 손주희 우승!



전라남도 보성에 위치한 보성 컨트리클럽(파72/6,460야드) 마운틴, 레이크코스에서 열린 'KLPGA 2014 보성CC · 카스코배 점프투어 6차전'(총 상금 3천만 원, 우승 상금 6백만 원)에서 준회원 손주희(18)가 생애 첫 우승을 일궈냈다.

선두에 1타 뒤진 4언더파 68타로 최종라운드에 오른 손주희는 7번홀(파3,167야드)에서 3퍼트로 보기를 범하며 1타를 잃은 후, 후반 13번

홀까지 버디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 하지만 손주희는 포기하지 않고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 14번홀(파4,397야드)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최종합계 4언더파 140타(68-72)로 동타를 기록한 준회원 이수민(18 · 낙생고3)과 연장 승부에 나섰다. 손주희의 상대인 이수민은 1라운드에서 5타를 줄이며 단독 선두로 최종라운드에 올랐지만 오늘 보기 3개와 버디 2개를 묶어 1타를 잃었다. 18번홀(파4,414야드)에서 치러진 연장 승부에서 손주희와 이수민의 세컨드 샷은 나란히 핀에서 25미터 거리에 떨어졌다. 손주희는 차분히 2퍼트로 파를 기록했고, 이수민은 3퍼트로 보기를 기록해 생애 첫 우승컵은 손주희에게 돌아갔다.

손주희는 "최근 골프가 될 듯 말 듯했는데 오늘 드디어 감을 잡은 것 같아 기쁘다.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이기 때문에 기분은 좋지만 다음 주에 또 대회가 있기 때문에 들뜨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KLPGA 2014 보성CC · 카스코배 점프투어 7차전 정다희, 점프투어 생애 첫 우승!



전라남도 보성에 위치한 보성 컨트리클럽(파72/6,460야드) 마운틴, 레이크코스에서 열린 'KLPGA 2014 보성CC · 카스코배 점프투어 7차전'(총 상금 3천만 원, 우승 상금 6백만 원)에서 정다희(21)가 생애 첫 우승을 일궈냈다.

손호정(19 · 제주고3)과 5언더파 67타 공동 선두로 최종라운드에

오른 정다희는 경기 초반 4번홀에서 보기를 범하며 1타를 잃었지만, 6번홀에서 첫 버디를 기록하는 등 4개의 버디를 잡아내며 총 3타를 줄여 최종 합계 8언더파 136타(67-69)로 진열장을 장식할 첫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정다희는 "첫 우승이라 기쁘다는 말 밖엔 생각나지 않는다. 부모님과 오빠에게 우승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지도해주시는 프로님들과 체력 관리를 도맡아 해주시는 원장님께도 감사드린다. 첫 우승을 해보니 우승 욕심이 더 난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비가 와서 힘들었다. 드라이버샷, 아이언샷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 어렵게 진행했는데, 다행히 퍼트가 잘 되어 만회했다. 경기 초반 긴장이 많이 됐고, 4번홀 보기 후 더 불안해졌다. 다행히 6번홀 첫 버디찬스를 놓치지 않아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고 경기를 평한 정다희는 "평소대로 하자는 마음 가짐으로 경기에 임했다. 최근 퍼트 연습을 많이 했는데, 오늘 효과를 제대로 봤다."며 우승의 원동력으로 퍼트를 꼽았다.

한편, 김아현(19)이 최종합계 4언더파 140타(73-67)로 단독 2위에 올랐고, 전 날 정다희와 함께 공동선두를 기록한 손호정은 더블보기를 범하는 등 3타를 잃으며 최종합계 2언더파 142타(67-75)로 조세미(19), 이수진(20)와 함께 공동 3위에 머물렀다.

KLPGA 2014 보성CC · 카스코배 점프투어 8차전 김보령, 시즌 두 번째 우승 달성!



전라남도 보성에 위치한 보성 컨트리클럽(파72/6,460야드) 마운틴, 레이크 코스에서 열린 'KLPGA 2014 보성CC · 카스코 배 점프투어 8차전'(총 상금 3천 만 원, 우승 상금 6백만 원) 마지막 '2차전 우승자' 김보령(19 · 볼빅)이 시즌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1언더파 7타, 공동 2위로 최종라운드를 맞이한 김보령은 버디 6개, 보기 1개로 5타를 줄여 최종합계 6언더파 138타(71-67)를 기록했다. 초반부터 공격적인 플레이로 버디 3개를 낚은 김보령은 7번 홀(파3,167야드)에서 보기를 범했으나 9번 홀(파4,405야드)에서의 버디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이어 후반에도 침착하게 두 개의 버디를 더 추가하며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우승 후 김보령은 "최근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우승 기회가 와서 부담감이 있었다. 마지막 퍼트할 때까지 예상을 못했는데 우승을 하는 순간 '다시 살아났다'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평소에 마운틴 3번 홀(파3,135야드)에서 파وند 잘 못했었는데 버디를 잡으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후회 없이 경기하자고 마음먹었는데 결과가 좋아 기쁘다."라고 덧붙혔다. 우승 요인에 대해서는 "페어웨이가 좁은 코스라 티샷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티샷이 잘 돼서 경기를 쉽게 풀어가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보령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정회원으로 승격하며 기쁨이 두 배가 됐다. 김보령은 지난 4차전 이후 아마추어에서 준회원으로 승격했던 바 있다. 이에 김보령은 "지난해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었는데 올해 성적이 좋아 기쁘다. 이제 정회원이 됐으니 내년에는 시드전 없이 정규투어에 진출하고 싶다."라며 당찬 목표를 밝혔다.

한편, 점프투어 4개 대회(5차전~8차전)에 모두 출전하고 평균 타수 74타 이내에 든 준회원 중 상금 순위 상위 14명이 정회원으로 승격됐다. 평균 타수 79타 이내를 기록한 아마추어(이론교육 이수자) 중 상위 5명은 준회원 자격을 부여받았다. (*하기 명단 참조)

*KLPGA 신입 정회원(승격자) 명단

김보령, 김아현, 김지연3, 박상아, 박소현2, 박주영4, 배수인, 손주희, 우선화, 이수민2, 이수진4, 전수빈, 정다희, 조세미 (14명, 가나다 순)

*KLPGA 신입 준회원(승격자) 명단

김슬기B, 손승희, 양은진, 이지영C, 황혜민 (5명, 가나다 순)

KLPGA 2014 CENTURY21CC · Volvik 시니어투어 6차전 이광순, 최종합계 4언더파 140타로 시즌 2승 달성!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에 위치한 '센추리21 컨트리클럽'(파72/5,780야드) 파인, 레이크 코스에서 열린 'KLPGA 2014 Volvik · CENTURY21CC 시니어 투어 6차전'(총상금 4천만 원, 우승상금 8백만 원) 최종라운드에서 '2013 시니어투어 상금왕'이 광순(45 · 볼빅)이 올 시즌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공동 선두로 최종라운드를 맞은 이광순은 전반에 보기 1개, 버디 1개를 맞바꾸며 타수를 줄이지 못했으나 후반 들어 버디 3개, 보기 1개를 묶어 2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4언더파 140타(70-70)로 우승을 거뒀다.

우승 후 이광순은 "눈물이 날 만큼 좋았다. 2차전에서 우승한 이후 5차전까지 성적이 좋지 않아 마음고생을 했다. 내 리듬을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우승을 해서 정말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우승 요인에 대해서는 "전반에 너무 지키는 플레이를 한 것 같았는데 후반에 들어와서 원래 하던 대로 하자고 스스로를 다잡았던 것이 주효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주에 '기아자동차 제28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에 출전했는데 첫 날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았다. 그래서 경기 후 퍼트 연습을 집중적으로 했더니 2라운드에서 효과를 봤다. 그동안 퍼트가 너무 안 돼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리듬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우승을 예감했던 순간으로는 17번 홀(파4,358야드)을 꼽았다. 이광순은 "15번홀(파3,146야드)에서 보기를 범하며 김희정과 동타가 됐는데 16번 홀(파5,468야드)에서 버디를 잡으며 우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정적으로 17번 홀에서 핀 우측 15미터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우승을 확신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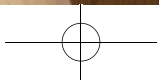
고마운 사람들에게 대한 인사도 잊지 않았다. 이광순은 "우승 후 남편과 딸이 가장 먼저 생각났다. 또한 2년간의 출산 공백 후 다시 골프를 시작했을 때 많은 도움을 주셨던 유창산업 황기현 부사장님 내외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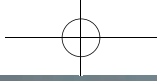
한편, 1차전 우승자 정일미(42 · 엔터팩)와 4, 5차전 우승자 김희정(43 · 아마하)은 최종합계 이븐파 144타를 기록하며 나란히 공동 2위를 차지했다. 1라운드에서 이광순과 함께 공동 선두에 이름을 올렸던 연용남(43)은 최종라운드에서 3타를 잃으며 최종합계 1오버파 145타(70-75)로 4위에 머물렀다.



COVER STORY

김효주 인터뷰





비. m

잘~

꿔다.

김효주!

김효주(19·롯데)가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김보경이
'E1 캐리티오픈'과
'롯데칸타타 여자오픈'에서
2개 대회 연속 우승한 이후
약 1년 1개월 만이다.
최상의 샷 감각으로
'기아자동차 제28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와
'금호타이어 여자오픈'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한
그를 만나보자.

글 _ 김현주
사진 _ 최성우

기다리는 비는 오질 않는다. 대지는 짝짝 갈라지며
거친 숨을 몰아 쉬 듯 뿌연 먼지만 피어오른다. 기
상예보는 장마철을 맞아 단비를 예고하고 있지만
비는 오질 않는다. 타들어가는 대지만큼 타는 가슴
으로 사람들은 비를 기다린다. 그 간절함은 아는
사람만이 알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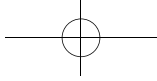
지난해 타는 목마름으로 진한 갈증을 느꼈던 김효
주를 만난 날도 비는 내리지 않고 하늘만 무겁게
내려앉은 후덥지근한 7월 중순의 끝 무렵이었다.

잔디를 통해 올라오는 골프장의 습한 공기로 숨이
턱턱 막혀도 그의 표정은 단비를 흠뻑 맞은 양 활
짝 피어있었다. 평소에도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어
보이는 그였지만 2연속 우승을 한 덕인지 표정에
는 더욱 생기가 돌았다. 하지만 그의 속내도 지난
해에는 실상 지금의 날씨만큼이나 뒀을 게다.

2012년 10월, 그가 처음 프로무대에 발을 디뎠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독주를 예상했다. 더구나
프로 입문 불과 2개월 11일만에 '2012 현대차 레이
디스 오픈'에서 우승까지 거두다 보니 예상은 기
대를 넘어 확신으로 변해갔다. 이처럼 세간의 주
목을 받았으나 지난해 그의 우승은 없었다. 비록
신인왕 타이틀은 거머쥐었으나 이는 세간의 기대
에는 못 미치는 결과였다. 그만큼 그에 대한 기대
는 남달랐다.

프로에 입문하며 프로나 아마추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수없이 되뇌며 정신적으로 강하게 무장했
다. 일종의 자기암시다. 아마추어 시절에도 프로무
대의 경험이 풍부한 그이기에 이런 생각의 크기는
가능했고 통했다. 하지만 몸은 속일 수가 없었다.
프로 초년병이 겪는 경험 미숙은 몸을 더욱 긴장

효주



COVER STORY

시켰고 긴장은 잦은 실수로 이어졌다.

“플레이를 하다보면 리듬을 탈 때가 있다. 잘 안될 때는 차분히 기다리며 자신을 조절하고 상승세를 탔을 때는 치고 올라가야 한다. 어느 대회에선가 상승세를 타고 가다 짧은 퍼트를 실패했다. 그 이후로 퍼트가 안됐다. 그린에만 올라서면 퍼터 잡기가 두려웠다. 수없이 찬스를 만들어 놓고도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우승문턱에서 내려앉은 경우가 몇 번 있었다. 왜 신인이라 부르는지 그때 실감을 했다. 아무리 정신적으로 무장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경험 미숙에서 오는 신체의 반응은 어쩔 수가 없었다. 다행히 올해 들어 퍼트 감각이 조금씩 살아나 우승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다.”

비록 지난해 우승은 없었지만 꾸준한 성적으로 상금순위 4위를 차지한 덕에 그는 올 'US 여자오픈'에 참가할 수 있는 출전기회를 얻었다. 'US 여자오픈'은 한국선수와는 유독 인연이 많은 대회다. 1998년 박세리가 한국 선수 우승 포문을 열었고 2005년엔 김주연이 우승을 차지했다. 2008년엔 박인비가 최연소 만 19세 나이로 우승컵을 가져갔고 2009년 지은희가 우승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선수들이 연속으로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2011년 유소연, 2012년 최나연이, 2013년엔 박인비가 메이저 퀸이 됐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올해는 국내 첫 메이저 대회인 '기아자동차 제28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와 기간이 맞물렸다. 오랜 고민을 한 그는 'US 여자오픈'을 포기하고 '기아자동차 제28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에 출전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아직은 국내에서 좀 더 경험을 쌓은 뒤 해외무대에 눈을 돌려도 늦지 않겠다는 판단에서다. 판단은 적중했고 그는 올해의 첫 번째 메이저 퀸으로 등극했다. '2012 현대차 차이나 레이디스 오픈' 우승 이후 1년 6개월 만에 두 번째 우승컵을 들었으며 내셔널 타이틀까지 거머쥐는 쾌거였다.

“3언더파를 우승 스코어로 예상했다. 따라서 매일 1언더파씩만 기록하자고 생각했다. 그런데 첫날 4언더파를 기록한 선수가 나왔다. 작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조금했을 텐데 올해는 그런 동요 없이 내 생각대로 플레이를 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처음 마음먹은 대로 하루에 1언더파씩을 기록하며 3언더파로 우승했다. 이 우승으로 그간의 망고생을 털어냄은 물론이고 새삼 골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겼다.

“우승도 좋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플레이에 얼마나 만족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만족할 만한 플레이를 했다면 우승은 그 다음이다. 나보다 더 잘한 선수가 나타나 그가 우승한다면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내 플레이가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면 우승을 해도 그리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다. 나는 성적보다는 내 자신의 플레이에 얼마만큼 만족하느냐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

내셔널 타이틀을 거머쥔 그는 '금호타이어 여자오픈'을 위해 중국으로 향했다. 중국을 대표하는 평산산이 그와의 맞대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산산과는 예전 아마추어 시절에도 몇 번 플레이를 함께 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감히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가 샷을 할 때마다 그저 감탄만 했다. 동반 플레이어의 입장보다는 갤러리가 된 느낌이 강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만남이 아닌 프로와 프로의 대결이다. 첫날은 평산산이 예상대로 치고 올라와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자국에서 열리는 대회이다 보니 갤러리의 응원도 한 몫을 했다. 평산산에 1타 뒤진 2위로 1라운드를 마감한 그는 2라운드에서 그보다 무려 9타를 앞서며 판세를 뒤집고 1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그의 상대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상대방의 성적보다는 자신의 플레이를 신경쓰며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결과는 흡족했다. 2위와 무려 7타 차라

는 비교적 넉넉한 성적으로 시즌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올 KPGA 투어의 루키전쟁은 그 어느 해보다 뜨겁다. 모두가 그와 같은 또래다. 아마추어 시절 국가대표를 함께하며 동고동락한 친구들이 지금은 프로무대에서 모두 만났다. 백규정은 이미 시즌 2승을 달성하며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다른 친구들도 호시탐탐 우승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언론에서 유난히 우리를 라이벌 관계로 만들며 대결 구도로 몰아간다. 주변에 실력이 뛰어난 친구가 많다는 것에 오히려 감사하고 서로의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되기에 더욱 친하게 지낸다. 다행스러운 것은 내가 그들보다 1년 일찍 프로에 입문해 신인왕 경쟁을 벌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 신인왕 경쟁은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쌍한 친구들이다.” (웃음)

이제 겨우 19살. 대학 1학년인 그도 소녀의 꿈을 키우며 자랄 시기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몸에 배인 경쟁의 구도 탓에 19세 소녀감성이 자리 잡을 여유 공간은 매우 좁다. 대신 그 자리는 온통 골프로 채워져 있다. 얼핏 보면 운동선수 같지 않은 평범한 신체조건을 가진 그가 겁 없는 스윙으로 뛰어난 활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최근 평산산, 박인비 등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플레이를 했다. 그들은 나의 우상이었다. 아마추어 시절 그들과 플레이를 할 때는 연신 감탄만 했다. 내 플레이는 뒷전이었고 언제나 그들 뒤만 쫓아 다니며 하나라도 더 배우려 열심히 그들의 플레이를 감상했다. 하지만 나도 이제는 프로다. 그들을 넘지 않고는 세계를 제패할 수 없다. 그동안 그들의 플레이를 많이 봤으니 이제는 내 플레이에만 신경 쓰자는 다짐으로 플레이에 임했다. 결과는 흡족했다. 속으로 '김효주, 잘~ 컸다!'라고 스스로 칭찬을 했다.” (웃음)



맞다. 그는 많이 컸다. 아니 앞으로도 더 커야한다. 시즌 2승을 달성한 그에게 조심스레 해외진출을 물었다. 단호하게 지금은 아니라는 답이 돌아왔다.

“당분간 해외투어 생각은 접었다. 지금 2승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국내투어에서 배울게 많다. KLPGA 투어의 인기가 높아져 대회 수도 늘어나고 상금액도 커지다보니 선수들의 기량도 상당한 수준이다. 해마다 실력 있는 쟁쟁한 신인들이 들어오고, 이것이 자극이 돼 선배들이 분발하다보니 신인선수부터 노장선수까지 누구하나 만만한 상대가 없다. 예전에 내가 갤러리로 프로들의 투어에 구경을 갔을 때는 스타플레이어 몇 명이 선두에서 경쟁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투어에 참가한 모든 선수가 선두 경쟁을 치열하게 한다. 그러다보니 누가 우승을 할 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여자프로골프의 인기를 한층 높이는 요인이고 인기에도 더불어 선수들도 더욱 분발하게 된다. 따라서 충분히 국내활동을 열심히 한 후 생각해 보겠다. 지금은 아직 이르다.”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그의 정체가 궁금하다. 분명 옛되고 수줍음 많은 10대 후반의 소녀가 앞에 있는데 골프 이야기만 나오면 어느새 성숙한 어른이 되어있다. 그렇다. 그에게 골프는 이제 필연의 과제다. 그만큼 고뇌와 투자의 시간 없이는 그 과제를 풀 수 없다. 그의 우승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게 거는 세간의 기대도 커져만 간다. 골프에 관한 그의 고뇌와 시련의 시간이 커져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어찌 보면 어린 그에게 너무 과한 짐을 올려놓았다는 느낌도 든다. 하지만 그를 믿기에 그에 거는 기대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고통스럽게 부리를 움직여 알을 깨고 새 생명이 탄생하듯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윤선정 인터뷰 부족한 2%,

열정으로 채운다

'KLPGA 2014
카이도골프 · 그랜드CC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6차전'서
윤선정이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정규투어에서의 쓴 실패를
경험으로 2부 투어에서
약진하고 있는 그를 만나보자.

글 _ 김현주
사진 _ 최성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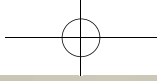
손재주가 좋아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를 잘했던 그가 골프채를 잡은 것은 우연이었다. 골프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따라 연습장에서 재미삼아 휘둘렀던 골프채의 매력에 빠진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무남독녀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던 그에게 골프는 또 다른 도전이었다. 유독 무엇인가를 시작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집요함으로 끝장을 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 탓에 집안은 온통 도화지와 올려놓은 색종이로 난장판이었다. 뒷정리는 언제나 어머니의 몫이었다. 마침 아빠를 따라나섰던 어린 딸이 골프를 한다고 하니 어머니는 반색을 하고 기왕이면 제대로 골프를 배우라며 골프아카데미에 그를 입학시켰다. 그곳에서 처음 그에게 골프를 지도했던 레슨코치가 지금도 그의 스윙을 지도하며 결을 지켜줄 만큼 그의 성격은 한결같고 끈질기다.

그의 성격에 차츰 변화가 생긴 것은 골프를 시작하고 3~4년이 지난 고등학교 1학년 때다. 동갑내기들이 골프아카데미에 들어오면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됐다. 그중에서도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는 최근 정규투어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전인지였다. 그의 실력이 출중하다보니 덩달아 다른 선수들에 대한 주변의 기대치도 한층 높아졌다. 주변의 기대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의 부담도 더불어 가중됐다.

주눅이 들었다. 골프도 싫어졌다. 지금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부모님께 골프를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부모님은 흔쾌히 그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모든 판단을 그에게 맡겼다. 의외의 결과였다. 오랜 세월동안 무남독녀인 그의 골프 뒷바라지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이기에 한번쯤은 말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부모님은 편하게 말씀하셨지만 속내는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하는 생각에 낙담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여기서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비장함으로 더욱 연습에 매진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골프 밖에 없다는 절박함으로 골프에 매달렸다. 그런 모습을 본 코치는 '신이 너에게 커다란 축복을 주셨다. 그것은 누구보다 열심히 연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다. 축복이라 생각하고 연습을 게을리 하지마라'며 독려했다. 코치의 한마디는 나에게 큰 힘이 됐다.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신이 주신 축복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더욱 열심히 했다."



힘든 연습의 결과는 이듬해 커다란 성과로 바로 나타났다. 2011년 'KLPGA 회장배 여자아마골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며 준회원의 자격을 획득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해에 정회원 자격 획득과 함께 '2013 KLPGA 정규투어 시드전'을 통과하며 꿈에 그리던 정규투어의 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첫 발을 디딘 정규투어의 무대는 달랐다. 우선 매 경기마다 바뀌는 골프장의 코스가 애를 먹었다. 그동안 경험한 2부와 3부투어는 일정기간 동안 같은 코스에서 경기를 하기에 적응기간이 있었으나 정규투어는 적응 할 새가 없이 매번 골프장이 바뀌었다. 거기에 기라성 같은 선배들의 실력을 보고 있자니 자신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다. '티 채리티 오픈'에서 기록한 16위가 최고 성적이었으며 이후부터는 연신 컷탈락의 수모를 당했다. 원대한 포부와 큰 기대로 출발했던 정규투어에서 초라한 성적을 손에 쥔 그는 '2014 KLPGA 정규투어 시드전'에서도 패했다. 예선전을 7위라는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고도 끝내 본선에서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다시 드림투어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드림투어 역시 만만치가 않았다. 예선을 잘 치르고도 본선에서 애를 먹어 가까스로 드림투어 시드전을 통과 할 수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무언가가 부족했다. 그만큼 준비가 덜된 상태였다. 그러다보니 기회가 와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었다. 지난 시간들은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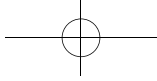
‘혹시라도 이 샷이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쓸데없는 걱정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에 대한 불신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찾아와 그를 괴롭혔다. 누구보다 많은 연습을 하고 있으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드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칠 수가 없었다. 올해부터 멘탈 강화를 위한 배움을 시작했다.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생기며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갔다. 불안과 초조도 인내와 여유로 돌아설 만큼 마음이 커질 무렵 우승이 찾아왔다. 바로 'KLPGA 2014 카이도골프 · 그랜드CC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6차전'에서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을 차지한 것! 공동 선두로 최종라운드를 맞은 그는 5타를 줄이며 2위와 3타 차의 낙승을 거두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졌던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우승의 기쁨보다는 자신을 넘어서고 있다는 뿌듯함이 오히려 커다란 희열을 가져다줬다.

“골프는 내 직업이다. 따라서 평생 함께 해야 한다. 완벽함이란 없지만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다보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 앞으로도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열등생의 피나는 노력으로 좋은 결실을 맺겠다.”



Sponsor & Player





스폰서와 선수 서로의 으~~리,

의리를 지킥시다!



프로 골프 선수들의 수입은 대회 상금과 스폰서십의 금액으로 이루어진다. 선수들은 기업과의 스폰서십 계약을 통해 모자 또는 가슴에 로고를 노출하는 조건으로 계약금과 대회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다. 스폰서십은 프로선수들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물질적, 금전적인 지원을 할뿐만 아니라 선수에게 소속감, 안정감을 주어 플레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기업은 선수들을 후원하면서 선수들을 통한 자사의 로고 노출, 기업 홍보, 제품 홍보 등의 효과를 누린다. 결국 선수와 스폰서 사이의 상부상조(相扶相助)는 필연이다.

최근 KLPGA 인기로 힘입어 선수 스폰서십도 최고의 절정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불과 5년 전만 해도 한국여자프로골프선수들에 대한 기업들의 후원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다. 남자선수들이 전년도 상금순위 톱10을 전후로 1억원대의 금액을 후원 받았다면, 여자선수들의 경우 톱5 안에 든 선수 정도가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후원 받았다. 또한 30위권 이내 선수들의 후원 금액은 2~3천만 원대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선수들은 후원기업으로부터의 관심을 받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의 KLPGA는 여자골프대회의 인기도가 급상승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다보니 시드권만 가져

도 마케팅 에이전트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선수는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자신의 기량을 최고로 선보인 다음 계약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된다.

기업들이 골프선수들에게 후원계약금과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잠재력 있는 골프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과, 기업의 사회환원적인 차원이다. 이를 통해 한국골프의 세계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명분이다. 하지만 기업이 선수에게 후원하는 이유는 기업의 이미지와 홍보의 극대화에 있다. 기업들은 선수를 통해 해당 기업의 이미지를 고급화하고 기업의 로고를 최대한 노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선수들은 기업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물론 스포츠 종목이기에 성격이 판단의 최우선 기준임에는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이미지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 이미지에는 외모적인 부분도 있지만 인성, 밝은 미소, 친절함 매너 등 인성적인 요소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은 성적이 낮은 선수가 높은 선수보다 더 좋은 후원조건으로 계약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기업에서 이러한 선호도가 더욱 강해지고 있는 추세임을 선수들은 알아야 한다.

프로 선수와 스폰서는 공존의 관계다.
선수는 스폰서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투어생활을 하고,
스폰서는 선수의 복장에 로고를 표시해
기업의 홍보 효과를 높인다.
따라서 선수와 스폰서는
프로세계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존의 관계다.
이번호에는 스폰서가 원하는
프로선수의 자질에 대해 알아본다.

글 _ 김현주

제주 삼다수

ChosunMedia 조선일보

KDB대우증권



이미지가 잘 다듬어진 선수는 스폰서에게 있어서 기업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된다. 항상 밝은 미소의 웃음 띤 얼굴과 눈에 띄는 패션 감각은 일반 골프팬들에게 있어 긍정의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프로암대회나 대회장에서 갤러리에게 보여주는 뛰어난 매너 또한 예절을 중시 여기는 골프선수들에게서는 중요한 덕목임을 잊지 말자.

그렇다면 스폰서는 어떤 유형의 선수를 기피할까? 우선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언행'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덕에 이런저런 말들이 오가다 보니 그로 인한 문제도 상당히 많다. 다른 회사 또는 다른 선수와 비교해 계약조건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거나, 기업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상시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이미 해당 기업과의 재계약은 물론 다른 기업과의 후원 계약도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골프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선수들에 대한 정보가 순식간에 퍼진다. 선수 또는 선수 부모의 언행과 이미지가 곧 기업의 이미지에 파급될 수 있기에 당연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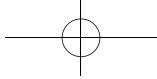
해당 기업의 모자를 착용했다면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별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그대로 스폰서의 귀로 전달된다.

모자의 크기와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패치가 잘 떨어져서, 우산이 무겁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는 타사의 모자나 우산을 쓰는 경우도 있다. 외모에 민감한 여자선수들이기에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데 이는 후원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실로 황당한 경우다. 스폰서 담당자들도 적절하게 선수들과의 대화를 통해 선수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지만 선수도 후원기업의 용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눈

속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법적으로도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다.

선수들이 모두 패션 감각이 뛰어나고 예뻐 수는 없다. 그리고 매번 웃고 있을 수도 없다. 하지만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멘탈이 긍정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심각한 표정을 짓는 것은 선수 자신에게도 손해이다. 자신의 플레이를 보고 있는 갤러리와 시청자를 위해서라도 웃는 얼굴과 깔끔한 매너를 표출하는데 주의를 해야 한다. 선수가 웃으면 스폰서도 즐겁다. 자신의 얼굴이 곧 스폰서의 얼굴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갤러리들은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기 위해 찾아온 고마운 분이다. 그들은 선수들이 멋진 플레이에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준다. 이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표하는 습관은 곧 자신에게 돌아올 복을 쌓는 행위다. 그러나



일부 선수들은 자신의 플레이에 불만을 표하거나 갤러리들의 소리에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한다.

경기를 마쳤을 때 주변을 돌아보라. 환호하고 응원하는 갤러리를 향해 자신이 플레이하던 볼을 건네주는 여유와 매너를 지닌다면 분명 자신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선수의 이미지가 높아지면 기업의 이미지도 덩달아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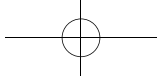
최근에는 많이 순화된 편이다. 몇 해 전만해도 선수의 플레이가 엉망이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부모가 현장에서 질타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당장은 선수들이 신중한 플레이를 펼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선수들의 인격이나 장기적인 독립성을 고려해 볼 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더욱이 선수와 대화장을 찾는 갤러리들과 시청자들에게 반감을 사게 될 일이라면 자신의 딸을 위해서 더욱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선수의 가족 역시 스폰서의 가족이다. 동업자 정신을 잊지 말자.

한국을 대표하는 탱크 최경주가 자신이 국내무대에서 활약하던 시절에 도움을 주었던 기업과 재계약을 했다고 한다. 무명의 선수를 뒷바라지 한 스폰서나, 유명선수가 되어 돌아와 보은을 하는 선수 모두의 의리에 박수를 보낸다. 이처럼 한번 맺은 인연이라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리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선수와 스폰서의 관계일 것이다. 최근 한 연예인이 입버릇처럼 떠벌리던 '의리'가 장안의 화두로 떠올랐다. 바로 선수와 스폰서의 관계에서도 가장 필요한 화두라 생각된다.

아무쪼록 KLPGA 무대에 대한 스폰서십이 활기를 띄고 있는 이 시기에 기업이 선호하는 선수가 되기 위해 모두 노력한다면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전성기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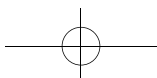
홍보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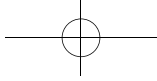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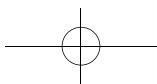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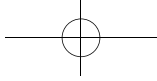
KLPGA
2014 제6대
KLPGA 홍보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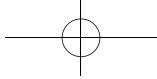
전인지, 허윤경

전인지 (20 · 하이트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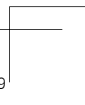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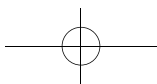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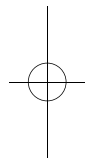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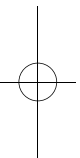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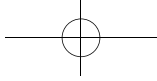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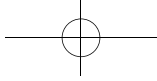






허윤경 (24 · SBI저축은행)





가장 수익성 있는
종합 에너지회사



자료 제공 _ 에스-오일 (www.s-o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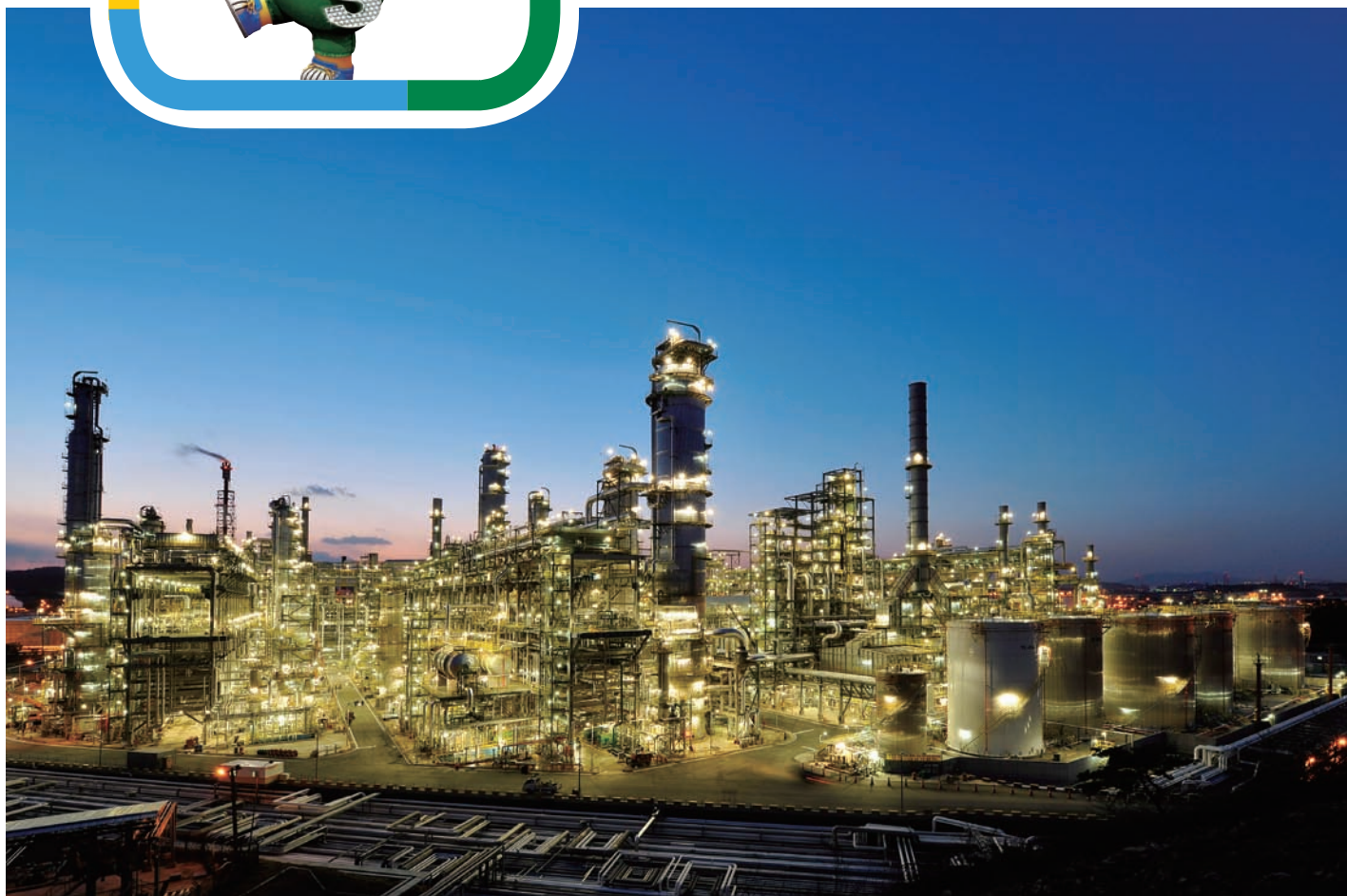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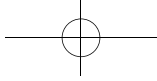
가장 수익성 있는 종합 에너지회사

에스-오일은 1976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산유국과 원유 소비국 간 합작 회사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정유회사이다. 1991년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사우디 아람코와 합작으로 안정된 경영 여건을 구축하고 남보다 앞선 투자를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첨단 정제 시설과 내수와 수출의 탄력적 마케팅 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정유사 중 최고의 수익성을 갖추고 있다.

에스-오일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시설투자를 지속하여 핵심 사업인 석유사업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장에 하루 66만 9천 배럴의 원유를 처리하여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원유 정제시설과 세계 최고 수준의 중질유 분해탈황시설, 단일공장 세계 최대 규모의 파라자일렌(합성섬유의 기초원료) 생산시설, 세계 최고 수준의 윤활기유 제조설비를 바탕으로 최고 품질의 석유제품을 생산·공급해 소비자 보호와 환경보호에 앞서는 기업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에스-오일은 내수산업으로 인식되던 국내 석유 산업의 고정관념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가동 초기부터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한 결과, 수출과 내수의 조화를 통해 국내외 영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매년 생산 물량의 6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또한 고도화 시설을 바탕으로 생산 전 제품을 저유





향·경질화하여 미국, EU, 호주 등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 하고 있다. 창립 초기부터 내수산업으로 인식되던 국내 석유 산업의 고정 관념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초기부터 해외 시장 개척에 주력해온 에스-오일은 국내 석유 산업을 고부가가치 수출효자 산업으로 탈바꿈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하여 '석유수출강국'을 이룩한 '효시'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에스-오일은 사회공헌활동 '햇살나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햇살나눔'은 사회에 햇살처럼 따뜻한 사랑을 두루 비춘다는 의미로, 나눔을 실천하여 밝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에스-오일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 캠페인은 소방관과 의인, 해양경찰을 지원하는 '영웅 지킴이' 활동, 천연기념물 보호에 노력하는 '환경지킴이' 활동,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지킴이' 활동 등 3가지 테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구도일 캐릭터마케팅

에스-오일이 2012년 개발한 캐릭터 구도일은 정유업계에서는 이색적 시도로 산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구도일(GOODOIL)"은 품질의 우수성과 브랜드에 대한 느낌을 좀 더 친근감 있고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으며, "좋은 곳(Good), 기름 오일(Oil) = 구도일"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에스-오일의 캐릭터 "구도일"은 국내 기업캐릭터 중 가장 성공적인 캐릭터 마케팅 사례로 평가 받고 있으며, 기존 CM Song에 더해 불과 2년만에 에스-오일의 차별화된 자산이자 심볼로 자리 잡았다. "구도일"은 광고캠페인의 메인 모델은 물론 멤버십/제휴카드, 세일즈 프로모션, 스포츠/문화마케팅, 주유소 상징물 등 소통의 핵심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의 문화 콘텐츠 라이선싱 전시회인 "서울 캐릭터 & 라이선싱 페어 2014"에서 에스-오일은 자사 캐릭터 "구도일"과 관련된 새로운 콘텐츠와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과 경험을 제공했다. "구도일 전시관"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키홀더, 봉제류 상품은 물론 새롭게 개발한 자동차



용품, 문구, 팬시, 의류, 모자 등 매력적인 신 상품들이 전시되어 소비자와 업계의 높은 주목을 받았다.

에스-오일은 "장기적으로 기획된 통합적 콘텐츠 마케팅 방향성 하에서 캐릭터 구도일을 중심으로 시대를 관통하는 공감 스토리와 디지털 플랫폼 확산을 위한 매력적인 콘텐츠를 지속 개발해 나갈 것이며, 궁극적으로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아이코닉(Iconic) 캐릭터로 키워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KLPGA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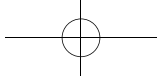
에스-오일은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KLPGA 골프대회 개최 및 선수 후원을 통해 한국여자프로골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에스-오일 챔피언스 인비테이션' 대회는 2007년 첫 대회를 치른 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며 성화대, 메달시상식 등 차별화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KLPGA 투어의 대표적인 대회로 자리잡았다.

또한 에스-오일은 KLPGA 이정화 선수를 후원하는 등 한국 골프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 KLPGA 정규투어 풀시드를 획득한 선수들 중에서 메인 스폰서를 잡지 못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Sub-Sponsorship 후원을 시작하여 호응을 받고 있다. 올해 4월 2일에는 김동희, 박지희,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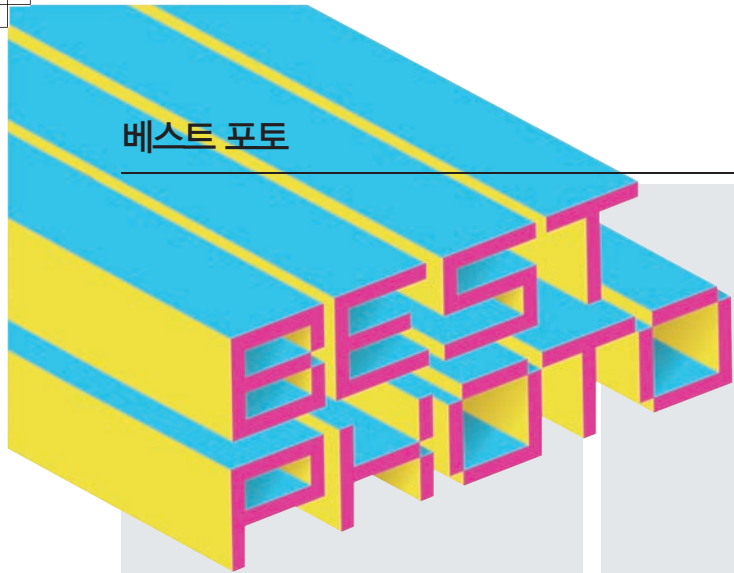
인지, 서희, 최윤정 등 5명의 루키선수와 후원계약을 체결했다.

에스-오일은 앞으로도 '에스-오일 챔피언스 인비테이션' 대회를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명문 골프대회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미래의 한국 여자골프를 이끌어 나갈 유망주를 발굴, 후원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베스트 포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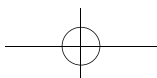
KLPGA 공식 사진기자인 박준석 사진기자가
직접 고른 베스트 포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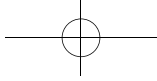
사진 _ KLPGA 공식사진기자 박준석



▶ 김효주 | 기아자동차 제28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우승트로피에 입맞추는 김효주

▶ 베퍼즈베스트 청라 | 기아자동차 제28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챔피언조에 몰려든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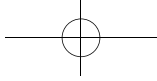


전인지, 김효주 |
기아자동차 제28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3번홀 그린을 살펴보고있다.

김효주 |
기아자동차 제28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월드컵 8강기원 8번홀에 설치된
브라주카 티마크를 배경으로 티샷하는 선수들



평산산, 김효주 | 금호타이어 여자오픈
17번홀 티잉그라운드에 올라서고있다.



베스트 포토

웨이하이 포인트 | 금호타이어 여자오픈
4번홀 그린으로 이동하는 선수들과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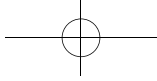


김효주 | 금호타이어 여자오픈
우승트로피를 들고 포즈 취하는 김효주



웨이하이 포인트 호텔 & 골프리조트
| 금호타이어 여자오픈
15번홀에서 바라본 17번홀 그린전경





▶ 김도연 | 금호타이어 여자오픈
3번홀 신중하게 퍼트라인을 살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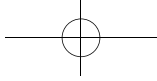
▶ 고진영 | 금호타이어 여자오픈
4번홀 그린으로 이동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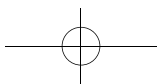
▶ 김효주, 김다나, 장하나,
중국의 평산산, 리우 바베, Tian Hong
| 금호타이어 여자오픈
금호타이어 여자오픈 포토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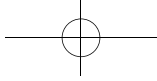


▶ 김효주, 평산산 | 금호타이어 여자오픈
김효주와 평산산이 17번홀 그린을 살피고있다.



포커스





다우아이엔디 대표이사 정명인

필드 밖, 세상에서의 게임

미술에 소질을 보이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감수성 예민한 중학교 3학년 소녀에게 어머니는 자꾸 골프를 권하셨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나이가 될 즈음이면 그림보다는 골프가 더 전망이 좋다는 이유에서다. 선견지명이 뛰어난 어머니 덕에 골프를 시작했다. 그리고 스물일곱 살에 프로에 입문해 투어선수로서의 인생을 시작했다. 지금이라면 한참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골프와 프로 입문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다지 늦은 출발은 아니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여자 나이 서른이 한참 전성기였다. 지금은 골프에 입문하는 시기도 빨라지고 우승하는 나이도 어려졌지만, 그로 인해 선수들의 투어프로 수명도 단축됐다. 한참을 투어선수로 활약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선수생활을 접는 후배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서른을 넘겨서도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게 골프다. 또 그 정도의 연륜과 경력이 쌓여야 골프의 참맛을 알 수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우승을 하고 서서히 골프의 맛을 느낄 때 즈음에 등 떠밀리다시피 필드를 떠나야 하는 지금의 현상은 우리나라의 골프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서른을 갓 넘긴 2003년 그는 투어생활을 접고 또 다른 골프와 인연을 맺었다.

“투어선수 시절에 경기를 하는 중에도 다른 풍경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다. 나쁘게 말하자면 집중을 못한 거다. 어릴 적 그림을 그려서인지 티잉그라운드에 설치된 보드들의 디자인이나 색상들에게 관심이 부쩍 갔다. 나라면 좀 더 세련되게 잘 만들 수 있을 텐데 싶은 생각에 경기에 집중이 잘 안 됐다. 그러다 보니 성적이 좋을 리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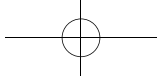
그런 그에게 지인으로부터 도움 요청이 왔다. 골프대회를 진행하는데 현장 감각이 없다 보니 그에게 이런저런 자문을 구한 것이다.

“그 당시엔 지금처럼 스포츠 마케팅 전문 회사가 없었다. 그러니 체계도 허술했다. 오죽하면 내게 자문을 구했겠나. 그런데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역할을 잘했다. 결과도 아주 훌륭하게 끝났기에 기왕이면 내 스스로 해보자 결심하고 이듬해 회사를 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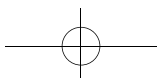
회원번호 144번 정명인.
KLPGA 정규투어인
'KB금융 스타챔피언십'을
처음 탄생시킨 장본인이다.
현재 다우아이엔디 대표이사로,
스포츠 마케팅 전문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며 투어프로로서의
몫다 이론 골프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그를 만나
제2의 골프 인생을 들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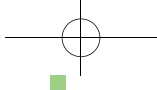
글 _ 김현주

사진 _ 최성우



포커스





사업가로 변신한 그는 골프대회를 개최할 만한 스폰서를 찾아다니며 그것이 기업에게 얼마만큼의 마케팅 효과가 있는지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고난의 시작이었다. 달랑 서류가방 하나 들고 담당자들을 만나러 하니 그를 보험회사 영업사원쯤으로 착각해 문전박대를 당하는 건 다반사였다. 사람을 만나야 뜻을 전하려면 도통 만나주질 않으니 애가 탈밖에.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갔다. 끈질긴 노력이 드디어 인정을 받게 돼 당시 엘지카드사의 골프대회를 모두 떠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을 돌며 1년에 20개가 넘는 대회를 치른 경험은 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리고 3년에 걸친 끈질긴 설득과 노력으로 마침내 그는 2006년 'KB금융 스타 챔피언십'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애써 대회를 유지해도 현장의 상황은 여자인 그를 무척 힘들게 만들었다. 티잉그라운드에 설치하는 보드 하나하나에 직접 못질을 해야 했고, 여자라며 무시하는 현장 일꾼들과 잔디밭에서 소주를 마시며 그들과 어울리려 노력했다.

그래도 투어생활의 경험이 그에게 값진 사업 밑천이 됐고 경기 도중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은 오히려 기지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또한 처음부터 몸에 밴 현장형 오너기질로 자질구레한 일 하나까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진행하다보니 점차 스폰서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

“훌륭한 선수 한 명을 육성하는 데에는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선수육성만큼 중요한 게 바로 선수 관리다. 제아무리 기량이 뛰어난 선수라 할지라도 체계적인 훈련과 경제적인 뒷받침 없이는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집안에 프로선수가 한 명 생기면 모든 식구가 그 선수를 위해 올인을 한다. 부모가 언제나 경기장에 따라다니며 뒷바라지를 해주고,

캐디 노릇도 해줘야하다 보니 전문성도 떨어진다. 결국 선수가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 선수를 육성하고는 제대로 관리가 안돼서 실패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다.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는 게 매니지먼트 사업이다. 운동선수가 오로지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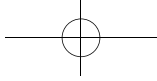
이제 스포츠 마케팅도 점점 세분화돼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골프대회만을 유치해서는 경쟁력이 약하다고 판단한 그는 새로운 분야에 눈을 돌렸다. 많은 경험이 쌓이다 보니 회사는 어느 정도 매뉴얼에 의해 체계화가 정립된 반면, 오히려 자신은 게을러지는 것 같아 새로 시작한 분야가 매니지먼트 사업이다. 그저 선수와 스폰서의 가교역할을 하는 단순한 에이전트의 개념이 아닌 선수발굴과 육성,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전담해 그들의 기량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이다. 요즘은 프로선수 출신이기에 이론적인 전문 분야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기 싫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한편으로 유능한 인재를 많이 확보하려 애쓰고 있다. 또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숨은 보석을 찾기 위해 그는 부지런히 2부 투어와 3부 투어가 열리는 지방 대회를 찾아다니며 후배 선수들의 기량도 살피고 있다.

그는 현재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오직 앞만 보며 달려온 사업 영역을 이제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까지도 진출하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중이다. 골프가 힘들어졌을 때 골프채를 내려놓고 또 다른 세상을 향해 도전했듯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 힘을 비축하고 있다. 그 에너지가 터지듯 폭발해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완성될 때까지 그는 여전히 사업가로 현장을 누빌 계획이다.

이제 그의 필드는 세상 밖이다. 18개의 홀을 돌며 쉼 없이 자신과의 싸움을 벌인 여자프로골퍼가 세상이라는 커다란 무대에서 제2의 골프 인생을 설계하며 보다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그는 후배 프로들이 너무 경쟁에만 매달리지 말고 골프를 즐기면서 선수생활을 하라고 권한다. 가끔은 한 달 정도 골프채를 내려놓고 본인 생활도 즐기며 좀 더 멀리 골프를 바라보며 인생을 즐겼으면 좋겠단다. 산을 오르다 보면 나무를 볼 수 없다. 오직 길을 찾을 뿐이다. 그러나 산을 내려와 바라보는 그곳에는 나무도 있고, 숲도 있다. 그 아름다운 기억에 우리는 또다시 산을 찾는 것이다. 골프를 떠올릴 때 경쟁의 기억밖에 없다면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밀리는 순간 골프가 싫어지게 마련이다. 골프의 참맛을 알아가는 과정이 오히려 프로답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프로골퍼에게 필드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필드는 단지 세상으로 나오기 위한 발판일 뿐이다. 좌절하거나 조급해 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보다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면 좋겠다. 프로가 되기 위해 쏟아 부은 열정과 노력으로 세상을 헤쳐나간다면 불가능은 없다. 프로는 필드를 떠나서도 프로답게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프로로서의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생활할 것을 부탁한다.”



건강한 골프

솔병원과 함께하는
건강한 골프

손, 손목 손상의 재활 및 예방 운동법 ⁶

글 _ 나영무(솔병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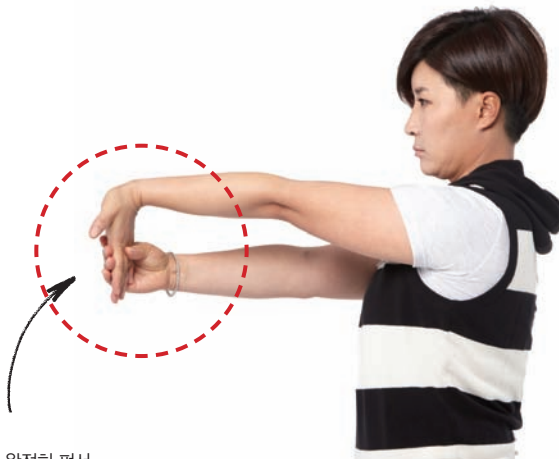
자료 제공 _ 솔병원(02-2064-7575, www.sol-hospital.co.kr)



01

손목 스트레칭

손목 신전근과
굴곡근 유연성 확보



한 쪽 팔을 완전히 펴서
어깨높이까지 올린 후,
반대손으로 손바닥(상단 그림)과
손등(하단 그림)을 몸쪽으로 당겨준다.



■ 운동횟수 X 세트 : 15~20초 X 2set

★ Point : 팔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02

손가락 스트레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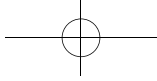
손가락 유연성 확보



■ 방법 : 한 쪽 팔을 완전히 펴서 어깨높이까지 올린 후, 반대손으로 손가락 마디를 몸쪽으로 당겨준다.

■ 운동횟수 X 세트 : 15~20초 X 2set

★ Point : 팔을 펴고 실시하되, 너무 과도하게 당기지 않아도 된다.



술병원은 KLPGA 공식지정병원으로서 KLPGA가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대회(각 투어 별 전 대회)에 전담 의무팀(앰블런스 1대, 간호사 1명, 트레이너 1명)을 파견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대회 기간 동안 부상 예방 및 처치를 위한 기본적인 Medical Service를 선수들에게 제공한다. 특히, 정규투어 메이저대회에는 전문의 1명과 의료장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운영한다.

03

손목 굴곡 & 신전운동

손목 굴곡근과
신전근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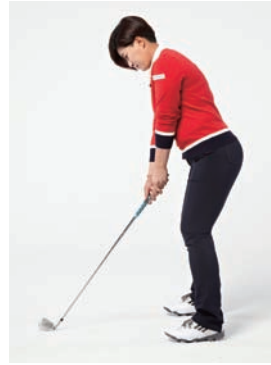


- 방법 : ① 의자에 앉아서 한 쪽 팔을 90도 구부려서 무릎위에 올려 놓는다.
② 그림과 같이 손에 덤벨을 쥐고, 팔을 완전히 고정된 상태에서 손목을 이용해 손바닥 굽힘동작과 손등 굽힘동작을 실시한다.
- 운동횟수 X 세트 : 15~20회 X 3set
- ★ Point : 손목의 힘만을 이용하여야 하며, 덤벨이 아니더라도 액서사이즈밴드나 플렉스 바를 이용해도 된다.

04

그립잡기 운동

손과 손목주변의
근육 강화



- 방법 : 어드레스를 잡고 그림을 평소 스윙할 때 보다 세게 잡는다. 그 자세를 5초 정도 유지한 뒤, 힘을 빼고 다시 반복한다.
- 운동횟수 X 세트 : 5초 10회 X 3set
- ★ Point : 힘을 주면서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꼭 클럽이 아니더라도 말랑한 공이나 플렉스 바를 이용해도 된다.

05

손가락 힘줄 강화 운동

손가락 주변 강화



- 방법 : 양쪽 손바닥은 떼고, 손가락 마디끝부분만 맞대고 힘을 주어 서로 밀면서 버틴다. 다섯손가락을 동시에 밀기도 하고, 한 손가락씩 밀기도 한다.
- 운동횟수 X 세트 : 5초 10회 X 3set
- ★ Point : 밀고 버티는 과정에서 손가락 마디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게 주의한다.

06

손목 편위 운동

손과 손목주변의
근육 강화



- 방법 : ① 의자에 앉아서 한 쪽 팔을 90도 구부려서 무릎위에 올려 놓는다.
② 그림과 같이 손에 덤벨을 쥐고, 팔을 완전히 고정된 상태에서 손목을 이용해 엄지손가락 방향,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힘을 주어 반복한다.
- 운동횟수 X 세트 : 15~20회 X 3set
- ★ Point : 손목의 힘만을 이용하여야 하며, 덤벨이 아니더라도 액서사이즈밴드나 플렉스 바를 이용해도 된다.

07

팔 주변 마사지



- 방법 : 손가락이나 팔꿈치를 이용하여 수시로 마사지한다.
- 운동횟수 : 각 5~10분
- ★ Point : 운동 전 후로 실시해 주는 것이 좋다.

08

손 주변 마사지



- 방법 : 손바닥, 엄지손가락 아래 / 위, 손목을 반대 손을 이용하여 수시로 마사지 해준다.
- 운동횟수 : 각 5~10분
- ★ Point : 운동 전 후로 실시해 주는 것이 좋다.

토니모리와 함께, 바캉스의 시작과 끝을 아름답게 보내자!

Vacance Beauty 7

바캉스에서 가장 돋보이는 뷰티 퀸이 되는 7가지 노하우

트렌디한 서머 메이크업 룩을 연출하는 것에서부터 피부 관리와 모발 케어에 이르기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체크할 것!

1 태양 아래 더욱 예쁜 썸머 페이스 룩

강렬한 태양 아래, 더욱 돋보이는 페이스 룩을 위한 토니모리의 특별한 제안! 토니모리의

2014 서머 메이크업 룩 'SUMMER VIKINI'가 탄생했다. 땀에도 물에도 지워지지 않는 롱라스팅 기능의 아이 메이크업과 생기 넘치는 핫 핑크 입술로 싱그러게 여름을 맞이하자!

- 1 토니모리 썸머비키니 크리스탈 토탈 블러셔 01 핑크하와이안 두 땀을 물들이듯 맑게 표현해주는 크림 토탈 블러셔, 2g, 6000원
- 2 토니모리 썸머비키니 셰이킹틴트 01 셰이킹핑크 롱라스팅 기능 뿐 아니라, 손드는 정도에 따라 발색을 조절할 수 있는 셰이킹 토탈, 8g, 6800원
- 3 토니모리 썸머비키니 해변 아이 스틱 01 누드비키니 물과 땀, 피지에 강한 워터프루프 기능의 라이너 겸용 새도우 펜슬, 3.2g, 7000원
- 4 토니모리 썸머비키니 젤핏 듀오 해변라이너 워터프루프 타입 듀오 아이라이너 04 해변블루, 0.7g x 2, 9800원
- 5 토니모리 수분광채 UV 수분쿠션 보습 수분 쿠션, 15g, 1만8800원



COVER MAKE-UP

2 끈적임 제로! 스마트한 페이스 메이크업

무겁고 답답한 피부 표현은 가라! 올 여름 페이스 메이크업은 피부 결점을 쏙~ 가려주고 피부 표현은 자연스럽고 산뜻하게 마무리하는 '비씨데이션'과 두드릴수록 톡톡 터지는 수분 입자가 피부를 시원하게, 화사한 광채 피부로 마무리해주는 '수분광채 UV 수분쿠션'에 맡겨두자.

- 1 토니모리 비씨데이션 비비보다 자연스러운 커버력, 피씨크림의 촉촉함, 파운데이션의 매끄러움이 하나로 바쁜 아침 메이크업 시간을 세 배로 단축시켜주는 스마트한 제품, 50g, 1만8800원
- 2 토니모리 수분광채 UV 수분 쿠션 끈적임과 다크닝, 번들거림을 모두 잡았다! 수분 에센스를 35% 이상 함유해 뭉침 없이 촉촉하게 밀착되는 보습 수분 쿠션, 15g, 1만8800원



CLEANSING

3 더울수록 깔끔하게 클렌징 듀오

메이크업과 땀, 피지로 범벅된 여름 피부, 피부에 사르르 녹는 '아쿠아포린 셔벗 클렌저'로 닦아내고, 달팽이 점액과 물이 함유된 '인텐스 케어 스네일 폼 클렌저'로 다시 한번 부드럽게 클렌징하자. 썸머 클렌징 듀오와 함께라면 모공 속 피지는 쏙 잡아내고, 피부는 보송보송 깨끗해진다!

- 1 토니모리 아쿠아포린 셔벗 클렌저 셔벗처럼 부드럽게 녹아 땀과 피지로 엉겨 붙은 메이크업을 깔끔하게 지워주는 클렌저. 피부 물기를 지켜주어 세안 후에도 피부가 촉촉! 90g, 9500원
- 2 토니모리 인텐스케어 스네일 폼 클렌저 달팽이 점액과 물이 피부 노폐물을 제거하여 촉촉하고 화사한 피부로 바꿔주는 특급 스킨케어 클렌저, 150ml, 1만5000원



바캉스 후 화끈거리는 피부 SOS 응급 처치법

1. 물놀이 하느라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어 화끈거리는 피부, 얼음을 감싼 수건으로 열을 식혀주고 오이나 감자, 찬우유로 팩을 해준다. 물집이 잡혔다면 빨리 병원에 가요!
2. 일광화상을 입었을 때는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자극을 주는 샤워젤이나 샴푸 사용도 당분간 자제할 것! 열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고보습 제품을 듬뿍 발라준다.

TONYMOLY(토니모리)는 영어로 '멋진, 랩시있는' 의미의 TONY와 '담는다' 의미의 MOLY의 합성어입니다. '아름다움을 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토니모리는 토달 뷰티 코스메틱 브랜드입니다.

MOIST UP

4 촉촉함의 해답은 바로 물.길.

강렬한 자외선 아래 손상되고 지쳐가는 피부. 강력한 수분처방이 필요하다. 물길 열여주기 → 수분 에너지 저장 → 보습막 클로징. 심플하지만, 강력한 3단계 수분케어, 피부 깊은 곳까지 연결된 '피부 물길'을 통해 피부 속 근본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아쿠아포린 3중 라인'을 주목해보자.

- 1 토니모리 아쿠아포린 오프닝 토너 다음 단계의 수분이 적절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피부 물길을 활짝 열어 매끈한 피부 바탕을 완성하는 오프닝 토너, 150ml, 1만3800원.
- 2 토니모리 아쿠아포린 워터풀 에멀전 피부에 부드럽게 밀착하여 즉 당김 없이 피부 물길을 촉촉하게 적셔주어 빠르게 흡수되는 워터풀 에멀전, 150ml, 1만 3800원.
- 3 토니모리 아쿠아포린 수분 크림 피부 가득 촉촉함을 머금어 물찬 피부로 완성해주는 피부 물길 가득 차오르는 수분 크림 중복합성, 45ml, 100ml, 각 1만 5800원, 2만 5800원.



팁과 피지에 속지 말자! 여름 피부 보습 노하우

두시간에 바짝 말라버리는 땀겨울처럼 돌아서면 건조해지는 여름 피부! 끈적임 때문에 자칫 보습에 소홀해지기 쉬운 게 문제다.

1. 뜨거운 열기와 건조한 에어컨 바람으로부터 수분을 지켜줄 가볍고 산뜻한 보습 제품을 충분히 바르고, 수시로 미스트를 뿌려 수분을 보충할 것.
2. 물을 수시로 마시는 건 기본! 피부 수분과 밸런스를 지키는 데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야채와 과일만한 게 없다.

BODY & HAIR

6 지친 바디 피부와 머릿결도 산뜻하게

사워하고 돌아서도 금세 끈적이는 여름 피부엔 산뜻한 사용감과 은은한 향기가 돋보이는 토니모리의 '퍼퓸드 바디 로션'과 '퍼퓸드 바디 미스트'로 기분까지 산뜻하게! 자외선과 수영장물, 바닷물에 푸석푸석 거칠어진 머릿결은 고농축 아르간 오일의 '메이크 에이치디 실크 아르간 오일' 한 방울에 맡겨두자.

- 1 토니모리 퍼퓸드 바디 그레이트 로션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플로럴 프루티 그린 향과 시어버터의 풍부한 보습감이 어우러져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로 가꿔주는 크리미 로션, 290ml, 1만6800원.
- 2 토니모리 퍼퓸드 바디 그레이트 미스트 플로럴 프루티 그린 아이리시와 매그놀리아, 화이트 머스크와 백단향이 달콤하면서도 여성스러운 하모니를 연출하는 우아한 향의 바디 미스트, 120ml, 1만6800원.
- 3 토니모리 퍼퓸드 바디 클래식 미스트 플로럴 앰버 머스크 은방울꽃과 복숭아, 로즈와 앰버향이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바닐라와 우드의 잔향이 관능적인 분위기를 더하는 바디 미스트, 120ml, 1만6800원.
- 4 토니모리 메이크 에이치디 실크 아르간 오일 끈적임 없이 가볍게 스며들어 손상된 모발을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고농축 아르간 오일 에센스, 85ml, 9900원.



SMART WHITENING

5 태양의 흔적을 지우는 똑똑한 화이트닝 케어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거뭇거뭇 칙칙한 여름의 흔적들. 발효 화이트닝 기술의 '플로리아 화이트닝 캡슐 에센스'로 미리미리 예방하자. 스킨과 로션, 에센스 기능을 모두 합한 '바이오 EX 멀티셀 에너지'까지 더하면 올 여름 주름과 미백 두 마리 토끼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 1 토니모리 바이오 EX 멀티셀 에너지 피부에 빠르고 가볍고 촉촉하게 흡수되는 발효 유효 성분이 주름과 미백 등 다양한 피부 고민을 찾아가 케어하는 멀티 트리트먼트 에센스, 120ml, 3만2000원.
- 2 토니모리 플로리아 화이트닝 캡슐 에센스 2번 발효한 연꽃 발효수와 진주빛 화이트닝 캡슐이 빠르고 산뜻하게 피부에 스며들어 맑고 깨끗한 피부로 가꾸어준다, 50ml, 2만원



PORE CARE

7 모공을 쫄쫄하게 잡아주는 모공 코르셋

모공녀 NO! 촉촉한 소공녀 YES! 땀과 피지로 늘어진 모공을 쫄쫄하게 잡아줄 모공 코르셋! 피부결을 매끈하고 촉촉하게 케어하는 토니모리 타임리스 포어 미니마이저와 모공이 넓어지는 원인까지 케어하는 플로리아 포어 에너지 에센스가 해답이다.

- 1 토니모리 플로리아 포어 에너지 에센스 각질과 모공 속 노폐물, 피부 건조, 과다 피지, 여드름 자국, 탄력 저하, 관리 소홀 등 모공이 넓어지는 원인부터 잡아내는 식물 성분 에너지 세럼, 50ml, 1만8000원.
- 2 토니모리 타임리스 포어 미니마이저 가볍고 실기한 마무리감으로 피부결을 매끄럽고 촉촉하게 가꿔주는 앰플 에센스, 50ml, 3만6000원.
- 3 토니모리 에그 포어 코 팩 삶은 달걀처럼 깔끔한 피부로 만들어 주는 강력 흡착 코 팩, 1매입 500원.
- 4 토니모리 에그 포어 딥 클렌징 폼 깨끗하게 쑥쑥 케어하는 블랙헤드 클렌징 폼, 150ml, 6000원.

plus item 함께 쓰면 좋은 제품



점점 열기를 더해가는
KLPGA 투어

무엇이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끄는가?



글 최현대
(KLPGA 명예기자)

KLPGA 투어가 유례 없이 인기 고공행진이다. 전세계 어느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자스포츠가 남자스포츠의 인기를 앞지르는 현상은 없다. 그러나 한국은 반대의 현상이다.

우선 대회규모부터 약 1.5배 앞지르고 있다.

KLPGA 투어 대회 수는 작년보다 5개 더 늘어난 27개 대회에 총상금은 약 160억원이다. 선수들이 잠시 휴식기를 갖는 8월 휴식기에도 대회를 계획해 놓은 상태라 더 이상 끼워 넣을 수 있는 일정이 없다. 그 어느해 보다도 KLPGA 투어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 한 해이다.

이러한 인기 고공행진은 대회에 직관하러 찾아오는 갤러리들 규모를 봐도 실감할 수 있다. 시즌 개막전인 '제7회 롯데마트 여자오픈'에서는 제주지역 임에도 무려 1천7백 명 이상이 찾아왔는데, 작년보다 약 3배 증가 수치이다.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2014'에서는 3천1백 명, '티 채널티 오픈'에서는 5천9백 명으로 모두 작년 규모를 넘어섰고, '기아자동차 제28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에는 무려 3만8천 명 이상이 대회장을 찾았다. 작년 스카이72에서 열렸던 'LPGA 하나-외환챔피언십' 갤러리 규모를 넘어서는 엄청난 인기다.

올해 KLPGA 투어 인기는 시청률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올해는 SBS골프 단독 중계임에도 작년 SBS골프와 J골프의 양 방송사 시청률을 합친 것보다 증가된 수치를 보여준다. 시즌 개막전인 '제7회 롯데마트 여자오픈'에서 KLPGA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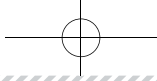
중계 사상 최초로 1%대 벽을 돌파했다. 최종 라운드 이민영2, 안시현, 김효주의 챔피언조 중계는 막판 오후 3시 53분, 분당 최고 시청률인 1,864%까지 치솟았다. 그리고, '빅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14' 최대 승부처였던 최종 라운드 16번 홀(파5)에서는 백규정 선수가 장하나 선수를 역전하는 당시 최고 시청률인 2,716%(16시 09분 ~ 11분)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다른 채널의 프로야구 중계가 있었는데, 골프가 프로야구 중계 시청률을 이겨본 것은 이번 경우가 최초였다. 대회 전체 평균 시청률은 0.660%라는 새로운 기록 수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 허윤경 선수가 우승한 '티 채널티 오픈'도 1.729%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승세는 기아자동차 한국여자오픈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상반기 전 대회 평균 시청률이 0.537%까지 나타나 작년 0.201%보다 약 3배 가량 상승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TNS 수도권 유료가구 기준). 아마도 포털사이트 실시간 중계까지 합치면 시청률 기록은 상상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청률 고공행진의 요인은 무엇일까? SBS 골프 관계자에 따르면 헬리캠 항공 촬영, 48대의 카메라로 선수 스윙을 다각도로 촬영하는 타임슬라이스 기법 등 입체감과 현장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방송 퀄리티 향상에 있다고 한다. 이것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라 할 수 있다. 작년의 강자들이었던 장하나, 김세영 선수가 여전하고 김효주, 전인지 선수의 신인왕 경쟁 등 대결구면이 양강 대결이었다면 올해는 다자간 대결로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우선 백규정, 김

민선5, 고진영 등 슈퍼 루키들의 가세로 매 대회가 혼전이다. 여기에 신인왕 경쟁의 3자 대결로 매 대회마다 그 순위가 바뀌게 되는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장타 경쟁도 작년 김세영, 장하나의 싸움에 김민선5가 끼어들어 예측이 어려워졌다. 대상포인트와 상금왕 역시 김효주 선수가 앞서나가면서 매 대회 순위가 바뀌는 형국이다. 다승 경쟁도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걸출한 실력의 선수들이 모여 저마다 기량을 겨루게 되면서 승부에 박진감이 더해졌다. 이는 실력 있는 KPGA 투어 남자 선수들의 일본 투어 러시로 공백이 생긴 스타 기근과는 반대현상이다. 이 선수들에 내년에도 몇몇 신인들이 합세한다면 KLPGA투어는 가히 최절정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다.

또 다른 시청률 고공 행진의 요인으로 올해부터 실시된 '2부제 티오프 시간제'로 경기 진행이 빨라졌으며, 여기에 참가 선수들 스스로가 진행을 빨리 하려는 노력이 더해져 경기시간이 4시간 30분 전후로 줄었다. 이는 시청률에 큰 관련이 있으며, 갤러리로 직관하는 이들에게도 큰 플러스 요인이 되는 현상이다. 더딘 플레이를 하는 선수에게는 엄격한 '삼진아웃제'를 실시해 앞서 나가다가도 발타를 받고 순위가 뒤로 처지는 현상도 의외의 반전요소로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KLPGA 투어의 유례없는 시청률 고공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향을 잡고서 꾸준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더 성장한 투어가 될 것이다.



골프 경기를 볼 때 골프 갤러리와 팬들은
마치 영화와 같은 장면들을 보면서
선수들의 극적인 우승에 환호하며,
오랫동안 그 순간을 기억하고 이야기한다.
다른 경기들보다 극적인 장면이 더욱 많기에 스포츠 경기 중에서도
영화의 소재로 많이 나오는 종목이 바로 골프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성공한 스토리도 있고,
다소 웃기는 장면으로 골프팬을 웃겨주는 영화도 있다.
비록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유명한 골프 영화는 없지만,
해외에서는 골프를 주제로 한 영화 중에 흥행에 성공한 영화가 제법 많다.
주말에 KLPGA 골프 경기가 끝난 후 그 감동이 가라앉기 전에
골프 영화들을 보면서 또 다른 감동들을 느낄 수 있는
영화 베스트5를 선정해보았다.

시네마 천국 그리고

골프 천국



글 _ 최경원
(KLPGA 명예기자)

자상 최고의 게임 The Greatest Game Ever Played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이 영화는 너무 극적이다.
실제로 이 영화는 가난 때문에 캐디를 하던 프랜시스 위멧이
US Open에서 당대 최고의 골퍼였던 해리 바튼과 테드 레이
를 이기고 우승을 차지한다는 1913년 US 오픈 당시의 스토리
를 다룬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영화 트
랜스포머의 남자 주인공으로 더 잘 알려진 샤이아 라보프(Shia
LaBeouf)가 열연을 하면서 실화의 감동을 보여주는데, 실제
주인공인 프랜시스 위멧은 나중에 프로가 되지는 못했지만,
명예의 전당에 헌액 되었다고 한다. 100년전에 사용하던 골프
채들과 의상 스타일들을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에, 이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2005년 작)

바비 존스: 스트록의 천재 Bobby Jones: Stroke of Genius



이 영화의 주인공인 바비 존스는 실제로 골프의 선구자라고
지금까지 칭송을 받는 사람으로 마스터즈 대회 창시자이며,
골프 프로 선수라면 누구나 라운드를 해보고 싶다고 말하는
미국 조지아주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코스를 만든 장본인이
기도 하다. 1925년 US 오픈 마지막 날 경기에서 바비 존스가

러프 있는 공을 아이언으로 샷을 하려는 순간 공이 아주 살짝
움직였다. 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경기진행 요
원을 불러 볼이 움직여 1벌타를 범했다고 사실대로 얘기했다
고 한다. 결국 진행 요원들이 회의를 거친 후 모든 결정은 바
비 존스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바비 존스는 자발적으로 자신
에게 1벌타를 부과하였으며, 그는 1타차로 경기에서 패하게 되
었다. 그의 페어플레이에 많은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졌고 훗
날 미국골프협회(USGA)의 스포츠맨십 상은 이 정직한 선수의
이름을 기려 '밥 존스 어워드(Bob Jones Award)'라고 부르게
되었다. 4개 메이저 대회를 한해 동안 모두 우승한 대기록을
세운 골프 선수의 페어플레이 정신을 배우고 싶다면 이 영화
를 추천한다. (2004년 작)

해피길모어 Happy Gilmore



이 영화는 개인적으로 주인공인 아담 샌들러(Adam Sandler)
의 팬이기 때문에 소개하기도 하지만, 무겁지 않은 코메디 영
화로서 기본 전환하기에 최고의 영화이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
은 영화이다. 아이스하키 선수의 꿈을 접고 우연히 휘두른 드
라이버가 인생을 바꾼다는 내용이지만 사실 전혀 황당한 이야
기만은 아니다. 영화 속에서 나오는 400야드는 현재 파워 골
퍼들에게는 현실 가능한 비거리가 되었고, 일명 해피길모어
샷이라고 불리는 러닝샷은 현재 KLPGA 김혜운 선수와 같이
스텝 스윙의 개념으로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
는 필드에서 이 해피길모어 샷을 따라하는 아마추어 골퍼들
때문에 법정에까지 가서 불법 논쟁을 할 정도였으니, 이 영화
가 단순한 코메디 영화가 아님은 확실하다. 400야드 비거리의
파워 골퍼를 꿈꾸는 골퍼 매니아들의 대리만족을 위해 이 영
화를 추천한다. (1996년 작)

틴컵 Tin Cup



케빈 코스트너와 르네 르소 주연으로 성격이 고집인 한 레슨
프로가 US 오픈에 출전해 우승을 노린다는 스토리지만, 가장
기억이 남는 장면은 우승을 눈앞에서 헌납하고 자신을 제어하
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자신의 인생과 게임을 망치면서도 자
신이 즐기는 스타일의 골프를 고집해 결국엔 마지막 홀에서
12번 만에 온그린 성공과 함께 흥인하는 장면이다. 자기만의
길을 가는 선수의 모습과 골퍼에서 마인드 컨트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화라 말할 수 있다. (1996년 작)

베가번스의 전설 The Legend of Bagger Vance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위의 영화들과는 다르게 다소 드라마적
인 요소를 넣어 우리와 같은 골퍼매니아가 사랑하는 가족들
과 다정히 볼 수 있는 영화이다. 특히 베가번스의 대사중에서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고유한 스윙이 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부터 갖고 있는 바로 우리만의 것이지, 가르칠 수도 배울 수도
없는 것 그리고 기억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
는 말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 같다.
진정한 인생의 감동을 느껴보고자 한다면 바로 이 영화가 답
일 것이다. (2000년 작)



정창기 경기위원장의 골프 룰
꼭 알아 두어야 할 규칙 Part 2

According to the Rules!

글 _ 정창기 경기위원장

RULE 16 퍼팅그린

●플레이어가 퍼팅그린에서 볼에 의한 피치마크와 오래된 홀 자국 외에는 아무것도 수리(특히 스파이크 자국)할 수 없다

※ KLPGA 경기위원회에서는 홀자국이나 볼마크라 하더라도 수리한 후 필요이상으로 그 주변을 두드리거나 누르면 규칙위반으로 간주한다.

퍼팅그린에서 주의할 점 ① 퍼트선의 접촉

② 퍼팅그린면의 테스트

③ 퍼트선을 걸터 서거나 그 위를 밟고 서는 경우

④ 다른 볼이 움직이고 있는데 스트로크 하는 경우

RULE 17 깃대

맞서는 안되는 것과 벌이 없는 사항(플레이어가 승인 또는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경우)

구분	퍼팅그린 밖의 스트로크		퍼팅 그린 위	
스트로크 플레이	시중들거나 들어올린 깃대 제거한 깃대 시중들고 있는 사람	2벌타 (볼은 있는 그대로 플레이)	시중들거나 들어올린 깃대 제거한 깃대 시중들고 있는 사람	2벌타 (볼은 있는 그대로 플레이)
비 고	시중들지 않고 있는 홀에 꽂힌 깃대를 맞힌 경우는 벌이 없다.		퍼팅그린 위에서는 시중들지 않고 있는 홀에 꽂힌 깃대라도 맞힌 경우엔 매치에서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에서는 2벌타를 받는다.	

※ 볼이 깃대에 기대어 있을 경우, 그 볼이 홀의 가장자리보다 더 아래로 위치하기 전까지는 홀에 들어간 볼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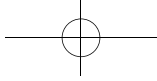
RULE 19-5

맞서는 안되는 것과 벌이 없는 사항(플레이어가 승인 또는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경우)

퍼팅그린 밖에서	벌타		처리		퍼팅그린에서	벌타		처리	
	A	B	A	B		A	B	A	B
A와 B가 동시에 스트로크하여 퍼팅그린 위나 혹은 밖에서 서로 부딪힌 경우	무벌타		있는 그대로 플레이	있는 그대로 플레이	A가 퍼트한 볼이 움직이고 있는데 B(홀에 더 가까움)가 퍼트하여 서로 부딪힌 경우	무벌타	2벌타	다시 플레이	다시 플레이
A는 퍼팅그린에서 B는 퍼팅그린 밖에서 스트로크하여 퍼팅그린 위에서 볼이 서로 부딪힌 경우	무벌타		다시 플레이	있는 그대로 플레이	A의 볼이 홀에서 더 멀리 있는데 B가 먼저 퍼트하고 A도 모르고 퍼트하여 서로 부딪힌 경우	무벌타	무벌타	다시 플레이	다시 플레이
A의 볼이 퍼팅그린 위에 정지 해있고 B가 퍼팅그린 밖에서 스트로크하여 서로 부딪힌 경우	무벌타		리플레이스	있는 그대로 플레이	A,B의 볼이 모두 퍼팅그린에 있는데 A가 퍼트하여 정지해 있는 B의 볼에 부딪힌 경우	매치플레이 무벌타, 스트로크 플레이 2벌타	무벌타	있는 그대로 플레이	리플레이스

골프 룰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KLPGA 홈페이지의 '정창기 경기위원장의 골프라'를
이용하시거나 klpgamembers@naver.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파고다스타의 생활회화



영어

Ryan 김(라이언 김) 강사

A : Excuse me, can I get some change?

잔돈 좀 바꿔주시겠어요?

B : How do you want it?

어떻게 원하세요?

A : (\$100일 경우)

I need 4 20s, 1 10, 1 5 and 5 1s, please.

20불짜리 4장, 10불짜리 1장, 5불짜리 1장,
1불짜리 5장으로 바꿔주세요.

(또는), Some 5s and singles are fine.

뭐, 5불짜리랑 1불짜리 적당히 섞어주세요.

(잔돈일 경우)

I just need some quarters for parking.

주차기계에 넣을 쿼터(25센트짜리 동전)가
필요해요.

B : Here you go.

여기요.

A : Thank you.

고맙습니다.



중국어

전유선 강사

A : 你好, 可以破钱吗?

Nǐ hǎo, wǒ kěyǐ pò qián ma?

안녕하세요. 잔돈 좀 바꿀 수 있을까요?

B : 可以, 你要破多少?

Kěyǐ, nǐ yào huàn duōshǎo?

가능합니다. 얼마를 바꾸시려고요?

A : 十张十块的, 两张五十的, 五张二十的.

一共三百.

Shí zhāng shí kuài de,

liǎng zhāng wǔshí de, wǔ zhāng èrshí de.

Yígòng sānbǎi.

10원짜리 10장, 50원짜리 2장, 20원짜리 5장이요.

총 300원 입니다.

B : 好的, 请稍等.

Hǎo de, qīng shāo děng.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일본어

김수진 강사

A : すみません。この千円札、両替できますか。

すみません。このせんえんさつ、リょうがえできますか。

스미마센, 고노 쉐엔사쯔, 료가에 데끼마스까?

실례합니다. 이 천엔 지폐, 잔돈으로 교환할 수 있나요?

B : あちらに両替機がございますので、ご利用ください。

あちらにリょうがえきがございますので、

ごりようください。

아찌라니 료가에끼가 고자이마스노데, 고리요 구다사이.

저 쪽에 동전교환기가 있으니, 이용해 주세요.

A : あの両替機、壊れているみたいで、両替できないんです。

あのリょうがえき、こわれているみたいで、

リょうがえできないんです。

아노 료가에끼, 코와레테이루 미타이데, 료가에 데끼나인데스.

저 동전교환기, 고장 난 것 같아요. 동전교환이 안돼요.

B : それでは、こちらで承ります。

それでは、こちらでうけたまわります。

소레데와, 고찌라데 우게타마와리마스.

그럼, 여기서 도와드리겠습니다.

A : 500円玉、2つをお願いし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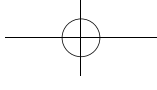
ごひゃくえんだま、ふたつでおねがいします。

고하꾸엔다마, 후타쯔데 오네가이 시마스.

500엔 동전으로 2개 주세요.

자료 제공

파고다스타(www.pagodastar.com)



MEMBER'S SERVICE

골프

골든베이 골프&리조트 KLPGA 회원 프로모션

기간 | 2014년 6월 30일 ~ 2014년 8월 31일

혜택 | 홀별 패키지 요금 적용

담당자 | 문태원 **연락처** | 041-671-8000, 8100(전화예약만 가능)

홈페이지 | <http://www.goldenbay.kr>

이용 시 회원증 또는 증빙서류 제시

골프사랑 KLPGA 회원의 해외골프투어 할인

기간 | 2012년 4월 1일 ~

혜택 | 골프사랑 전 여행상품(홈페이지 참조) 직원이 적용, 국내전 세버스 정상요금의 10 ~ 15% 할인

담당자 | 김중석 관광 **연락처** | 031-284-7777

국내 전세버스는 가족회사 (주)삼일관광여행사와 연계하여 운영.

골프존아카데미 KLPGA 회원 골프존아카데미 특별할인

기간 | 2012년 12월~

혜택 | 정상 판매가격에서 50% 할인(상성/목동지정제외)
이용가능 지점- 서울 : 공덕점, 발산역점, 중계점, 신반포점, 강남점 / - 경기 : 서판교점, 행신점, 분당오리점, 정자점, 용인보정점, 김포 사우점, 일산마두점, 남양주호평점 / 조건 : 1일 1회(60분) 이용 - 등 록 자점에 한함.

담당자 | 엄동환 대리 **연락처** | 070-8640-6431

대영힐스 CC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그린피 혜택

기간 | 2012년 12월~

혜택 | KLPGA 회원 내장 시 주중 그린피-69,000원, 프로요금 신설 이벤트(7/15~8/15)-그린피 50,000원, 단, 주말/공휴일은 그린피 할 인 없음.

담당자 | 서병일 대리 **연락처** | 043-850-8601~3
그린피 할인을 위한 '대영힐스 CC 프로등록 신청서'를 제출

리앤리 CC KLPGA 회원 골프장 이용시 그린피 할인 혜택

기간 | 2013년 5월 20일 ~ 2014년 12월 31일

혜택 | KLPGA 회원 내장 시 주중1부 4인 1팀 기준 그린피 50% 할인, 당사 인터넷 회원 가입 후 인터넷 예약만 가능 (전화예약 시 혜택 불가)

담당자 | 김만기 대리 (영업담당) **연락처** | 031-580-9021

롯데스카이힐 제주 CC KLPGA 회원 그린피 혜택(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기간 | 2013년 5월 ~

혜택 |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내장 시 주중, 주말 그린피 20% 할인

담당자 | 진동석 (고객서비스팀) **연락처** | 064-731-2020

레이크힐스안성 GC KLPGA 회원 그린피 혜택(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기간 | 2014년 5월 1일 ~ 10월 30일

혜택 | 안성GC : 4인 입장 시 2인 무료, 3인 입장 시 1인 무료 / 안 성리조트 : 80,000원

담당자 | 류가형 매니저 **연락처** | 010-7292-2972

레이크힐스 용인 CC KLPGA 회원 그린피 혜택(정회원)

기간 | 2012년 7월 15일~

혜택 | 정회원 내장 시 1인 정회원 대우, 그린피-정회원 23,000원, 준회원 100,000원/ 연습장 이용시 KLPGA 정회원, 준회원 50% 담당자 | 영업운영팀 최남미 **연락처** | 1588-6186

무주안성 CC KLPGA 회원 그린피 혜택(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기간 | 2014년 2월 ~

혜택 | KLPGA 정회원 - 그린피 50%(주중, 주말), 정회원간 2인 플 레이 기준(주중, 주말), 숙소 무료제공(단, 정회원내 한함. 사전요청 시) KLPGA 준회원, 티칭회원 - 그린피 30%(주중, 주말)

담당자 | 유원식 실장 **연락처** | 063-320-3202

세라지오 CC KLPGA 회원 그린피 혜택(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기간 | 2013년 8월 12일 ~

혜택 | KLPGA 회원 내장 시 주중 : 25,000원 / 주말 : 105,000원, 당사 회원과 동반 내장 시 주중 : 105,000원 / 주말 : 150,000원, 주 말예약은 2부에만 가능, 주말 해당일 12일 전 이후 예약 가능

연락처 | 031-887-8780 (예약실)

스카이72 GC KLPGA 회원 연습장(드림골프레이저) 이용 혜택

기간 | 2005년~

혜택 | 1) KLPGA 정회원 중 전년도 상금순위 30위 까지 : 자동타석 주중/주말 90분 무료(1회 포함) - 추가 연장 시 자동타석 90분 에 한해 50%할인(1일 2회 까지) / 2) KLPGA 정회원 : 자동타석 주중/ 주말 90분 50% 할인(1일 2회 까지) / 3) KLPGA 준회원 : 자동타석 주 중/주말 90분 30% 할인(1일 2회 까지)
담당자 | 스카이72 김형준 매니저 **연락처** | 1644-7222

스프링베일 GC KLPGA 회원 그린피 혜택(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기간 | 2012년~

혜택 | 주중 18홀 : KLPGA 회원 1명, 동반자 3명 내장 시 회원 1명 그린피 면제(동반자 2명일 경우 50% 할인) / 주말 18홀 : KLPGA 회 원 1명, 동반자 3명 내장 시 회원 1명 그린피 50% 할인(동반자 2명 일 경우 혜택 없음) / 1팀 내 회원이 2명 이상일 경우 1명만 혜택.
담당자 | 프린트 **연락처** | 033-254-7900

신안골프레이닝센터 KLPGA 회원 이용료 할인 혜택(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기간 | 2014년 7월 ~ 2014년 12월 31일

혜택 | 타석, 파3, 병커/숫게임, 사우나 이용료 할인
연락처 | 031-673-8853 **홈페이지** | www.shinanc.co.kr

오너스골프클럽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그린피 혜택

기간 | 2014년 3월~

혜택 | 주중 정상 그린피의 50% 적용 (단, 주말, 공휴일은 제외)
연락처 | 033-260-1918, 1919

옥스필드 CC KLPGA 회원 그린피 할인(정회원)

기간 | 2012년 4월~

혜택 | KLPGA 회원 1명, 동반자 3명(4인 1팀) 내장 시 회원 1명 골프 장 정회원 대우(그린피 23,000원)
담당자 | 예약실 박성민 **연락처** | 033-340-7700

우리들리조트 제주 KLPGA 회원 그린피 할인(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기간 | 2012년 10월~

혜택 | 동반자 2~3인 내장 시 정회원: 주중 그린피 면제 / 주말 그 린피 50% 할인 / 준회원: 주중 그린피 50% 할인 / 주말 20% 할인
담당자 | 강유진 프로
연락처 | 064-766-7802 / 010-9162-0207

파인비치골프링크스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그린피 할인 혜택

기간 | 2014년 3월~

혜택 | 프로1명+비회원3명 : 프로는 주중3만원/주말5만원, 동반자 는 당일팀 : 정상가/1박2일팀 : 패키지가 적용, 프로4명 : 주중50% 할인, 프로 추천팀은 주중 2만원 할인, 단 카트비, 캐디피는 정상
담당자 | 문창식 대리 **연락처** | 063-320-3202

포천힐스 CC KLPGA 회원 골프장 이용시 그린피 면제 혜택

기간 | 2013년 2월 11일~2014년 12월 31일

혜택 | KLPGA 회원 골프장 이용시 그린피 할인 혜택, KLPGA 회원 1명, 동반자 3명 내장 시 회원 1명 주중 그린피 할인
연락처 | 031-538-7000

태광 CC KLPGA 회원 그린피 혜택(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기간 | 2013년 9월 9일~

혜택 | 퍼블릭(전시간대, 휴일포함) - 프로 1명 면제, 회원제(전시간대, 휴일제외) - 프로 1명 회원 대우
연락처 | 070-8189-6100 **홈페이지** | www.taekwangcc.co.kr
일반인3명 동반내장시 할인혜택은 1팀 1명에 한함, 접수시 회원증 제시

타니 CC KLPGA 회원(정회원) 그린피 혜택

기간 | 2012년~

혜택 | KLPGA 정회원 본인 그린피 할인-주중 6만원, 할인 혜택은 주중에 한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연락처 | 055-831-7010

한성 CC KLPGA 회원 그린피 혜택(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기간 | 2014년 6월 25일 ~ 8월 31일

혜택 | KLPGA 회원 본인 1인 그린피 무료(4인 1팀기준) / 전일 비회원 3명 동반시 무료

담당자 | 김중부 프로(011-706-7548) **연락처** | 031-284-3831~6
현재 평일 비회원 입장요금 190,000원

해피니스 CC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그린피 할인 혜택

기간 | 2014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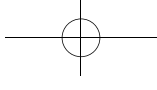
혜택 | KLPGA 회원 골프장 이용시 그린피 할인 혜택
담당자 | 강혜진 계정 **연락처** | 061-330-6001

휘닉스스프링스 CC

기간 | 2014년 4월 14일 ~ 2014년 12월 20일까지

혜택 | 담당자에게 문의
담당자 | 함대주 과장 **연락처** | 031-630-7021

본 혜택은 KLPGA 회원에 한하며, 이용 시 회원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시어 회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EMBER'S SERVICE

KLPGA
Korea 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360도 CC

KLPGA 회원 그린피 할인(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기간 | 2013년 4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혜택 | KLPGA 회원 본인 1인 그린피 주중 50% 할인(4인 1팀 기준),
1일 1회 본인에 한하며 주중 잔여 타임에만 가능
담당자 | 윤준섭 주임(031-880-3612)
연락처 | 031-880-3600

해비치CC제주

KLPGA 회원 골프장 이용시 그린피 할인 혜택

기간 | 2014년 4월 ~
혜택 | 프로는 골프장 회원요금 / 동반자는 골프장 규정요금
연락처 | 프론트(064-766-6200)
익스프레스(064-780-8000)
홈페이지 | <http://golf.haevichi.com>
사전 유선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반드시 미리 예약 바랍니다.

의 료

서울위드치과

KLPGA 회원 및 직계 가족

기간 | 2014년 2월 ~ 2015년 1월
혜택 | 구강검진, 스켈링 무상지원, 비보험 진료 10~20% 할인
담당자 | 정홍주 실장 연락처 | 031-898-2282
사전 유선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정홍주 실장)를
통해 미리 예약 바랍니다.

솔 병원

KLPGA 공식 지정병원

기간 | 2014년 4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혜택 | 2014년 KLPGA 주최, 주관 전 대회 전담의무팀(앰블런스, 간호
사, 트레이너) 파견 / KLPGA 회원 대상 진료 및 종합검진 프로그램
혜택 제공 / 진료 및 재활치료비 감액(20 ~ 30% / 단, 비급여 항목에
한 함) / 골프검진 프로그램 지원(정규투어 시드권자 및 당해연도 정
규투어 출전 경력이 있는 선수 연 1회 무상 지원) / 종합검진 시 최대
한의 편의 제공
담당자 | 박상근 원무과장 연락처 | 02-2064-7575

이스턴 치과의원

KLPGA 회원을 위한 의료 혜택

기간 | 2012년 11월 ~ 2014년 12월
혜택 | 구강검진 및 상담, 치료 및 사후 관리, 진료 및 수술비용 할인
담당자 | 김민서 실장 연락처 | 02-553-2804

하늘안과의원

KLPGA 회원 진료 및 수술비용 할인

기간 | 2012년 7월 1일 ~ 2015년 6월 30일
혜택 | 첨단 안 종합검사 무료(50여가지 검사),
ONE - DAY 수술 가능(추가비용 없음),
웨이브프론트 무료(30만원 상당), 수술회망시 제휴특가
KLPGA 회원 및 임직원 대상 시력교정수술 할인
연락처 | 02-573-9779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미리 예약 바랍니다.

생 활 / 문 화

(주)모리앤

KLPGA 회원 제품 할인 혜택

기간 | 2014년 4월 ~
혜택 | 모리앤 헤어샴푸, 헤어토닉 제품 50% 할인,
본사 홈페이지 및 전화 주문 구매
담당자 | 이준형 과장 연락처 | 051-929-6916 / 051-9733-9733
홈페이지 | www.ks1004.kr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에 klpga 가입

(주)천지양

KLPGA 회원 홍삼제품 할인혜택

기간 | 2013년 12월 19일 ~
혜택 | (주)천지양 홍삼제품 정싱가대비 40%할인
(공식 온라인쇼핑몰 사포닌샵(www.saponin.co.kr))에서
판매중인 상품에 한함)
담당자 | 이대웅팀장 연락처 | 02-2071-3678

군산 오스카스위트 호텔

KLPGA 회원 객실 요금 특별 할인

기간 | 2014년 6월 11일 ~ 2015년 6월 11일
혜택 | 디럭스 더블 / 정싱가 110,000원 → 할인가 60,000원
디럭스 트윈 / 정 싱가 121,000원 → 할인가 60,000원
스위트 더블 / 정싱가 143,000원 → 할인가 88,000원
스위트 트윈 / 정싱가 154,000원 → 할인가 105,000원
스위트 트리플 / 정싱가 220,000원 → 할인가 135,000원
로얄테라스 스위트 / 정싱가 220,000원 → 할인가 135,000원 등
디럭스 더블, 디럭스 트윈, 스위트 더블 2인 기준 / 조식 불포함/
부가세 포함 / 한 객실 추가 투숙 시, 1인 당 객실요금 10,000원,
조식 10,000원 제공
담당자 | 박진만 지배인 연락처 | 063-464-0505~6

그랜드컨벤션센터

KLPGA 회원 각 직계 부모, 자녀 예식/ 교회연 / 돌잔치 할인

기간 | 2013년 6월 ~ 선착순 50팀
혜택 | 계약 순서에 따라 50팀
담당자 | 유미영 차장, 신경선 과장 연락처 | 02-3667-9000, 7776

까라디

KLPGA 회원 까라디 헤어, 메이크업 할인혜택

기간 | 2012년 9월 ~
혜택 | 까라디에서 제공하는 헤어, 메이크업 관련
모든 서비스, 정가의 50% 할인
담당자 | 이창현 이사 연락처 | 010-4050-3636
도산점, 이촌점, 테크노마트점에서만 가능

넥센타이어

KLPGA 회원 넥센타이어 특가 기획전

기간 | 2014년 8월 31일까지
혜택 | 타이어 할인(무상 장착, 무상 배송)
1. N-FERA(최고급 타이어)/N-BLUE(친환경 타이어) 40%이상 할인
2. 주유 상품권 증정 : 2보 구매 시 1장, 4보 구매 시 2장
담당자 | 넥센 본사 온라인 직영몰 AP 엔터프라이즈 이인규 대표
연락처 | 010-2335-3560

레드캡투어

KLPGA 회원 레드캡투어 여행 상품 할인

기간 | 2012년 9월 ~
혜택 | 일반 여행 상품 최대 9% 할인, 허니문 최대 10% 할인, 직계
가족, 대리 예약 등, 무이자 혜택 서비스
담당팀 | 레드캡투어 마케팅팀 연락처 | 02-2001-4500
신규 KLPGA 회원의 경우, 상담 연락처로 문의 부탁 드리며,
기존 KLPGA 회원의 경우 ID 및 패스워드는 KLPGA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베니키아 호텔 문학

KLPGA 회원 객실 요금 특별 할인

기간 | 2014년 7월 25일 ~ 2015년 3월 31일
혜택 | 스탠다드(2인) 154,000원 → 주중 60,000원 / 주말 77,000원
디럭스(4인) 176,000원 → 주중 90,000원 / 주말 100,000원
럭셔리(4인) 198,000원 → 주중 100,000원 / 주말 110,000원
스위트(4인) 220,000원 → 주중 100,000원 / 주말 120,000원
예약문의 | 033-734-7315 홈페이지 | www.munmakhotel.co.kr

웰리힐리파크(구.성우리조트)

KLPGA 회원 '웰리힐리파크' 객실 특별할인' 제공

기간 | 2012년 12월 1일 ~
혜택 | 객실이용시 기간별 특별요금으로 제공
객실예약 | <http://www.wellhillipark.com/partnership/>
객실정산문의 | 1544-8833(ARS 1번)

제주 항공우주 호텔

KLPGA 회원 숙박료 할인(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기간 | 2014년 5월 ~ 2015년 12월 31일
혜택 | 슈퍼리어(9평) : 주중 70,000원, 주말 90,000원 / 디럭스(13평)
: 주중 80,000원, 주말 100,000원
객실예약 | 064-747-4900
성수기(7/18 ~ 8/17) 별도 요금 적용

청풍리조트

KLPGA 회원 청풍리조트 객실 요금 할인 제공

기간 | 2014년 12월까지
혜택 | 객실(23㎡, 스탠다드 트윈/온돌) / 정상 요금: 111,000원 할인
요금(VAT포함) / 주중(일~목) : 60,000원 / 주말(금, 토) : 70,000원
담당자 | 박종미 연락처 | 02-422-8100

풍림리조트 제주

KLPGA 회원 풍림리조트 제주 객실 요금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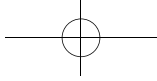
기간 | 2014년 12월까지
혜택 | 객실(85㎡, 스탠다드 한라산전망) / 정상 요금 : 330,000
원 할인 요금(VAT포함) / 주중(일~목) : 88,000원 / 주말(금, 토) :
99,000원
담당자 | 김성은, 유선영, 조은비 연락처 | 02-566-6421

풍림리조트 청평

KLPGA 회원 풍림리조트 청평 객실 요금 할인

기간 | 2014년 12월까지
혜택 | 객실(85㎡, 객실구분 없음)
정상 요금: 250,000원 할인 요금(VAT포함) / 주중(일~수) : 60,000
원 / 주말(목~토) : 80,000원
담당자 | 김성은, 유선영, 조은비 연락처 | 02-566-6421

본 혜택은 KLPGA 회원에 한하며, 이용 시 회원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시어 회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소식지에 실릴 회원 분들의 많은 소식과 정보를 기다립니다.
klpgamembers@naver.com으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orea 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어 학



파고다 어학원

KLPGA 회원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간 | 2013년 4월 1일 ~ 2015년 3월 31일

혜택 | KLPGA 회원 매달

오프라인 1강좌 + 온라인 2강좌 무료 수강

〈오프라인 강좌(월 1과목 수강 가능)〉

—파고다 어학원 4개 지점(강남점, 종로점, 신촌점, 부산점)

—각 지점 별 등록처 직접 방문 신청 및 화원증 지참 필수

—수강 가능연령 30세 이하(84년 이후 출생)로 제한

〈온라인 강좌(월 2과목 수강 가능)〉

—KLPGT 홈페이지—멤버존—외국어교육 배너 클릭 후 수강 등록

—수강 가능연령 제한 없이 전 회원 가능

신청기간 | 매월 17일~익월 10일

담당자 | 고영순 대리

연락처 | 02-6907-2857

수업(온라인, 오프라인) 진도율 70%, 미달일 경우:

1년 간 지원 중단

본인이 아닌 대리인 수강이 적발될 경우:

지원 영구 중단 (온라인, 오프라인)

※ 대리인: 가족, 친인척, 친구 등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

잉글리쉬 솔루션

KLPGA 전화영어교육

기간 | 2013년 12월~14년 3월/4월~7월/8월~11월(연 3회)

혜택 | KLPGA 회원 무료 전화영어교육 지원

1) 모집인원 : 50명

— 우선순위 : 1순위(신규 신청자), 2순위(기존 신청자)

2) 교육기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주3회 교육) / 매일

06:00 ~ 24:00 중 선택

3) 교육지원 : 주3회 10분(58,800원) 교육 100% 협회 지원

4) 신청방법 :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담당자 E-Mail 또는 Fax로 발송

담당자 | KLPGA 김민주 대리

연락처 | 02-560-4426, 02-539-6003(fax)

manijoo@klpga.org

홈페이지 | http://www.timetotalk.co.kr

1) 70% 이상 수업을 듣지 않은 경우 자동 지원 중단되며,
출석률 미달 시점을 가산 월로 차후 1년간 전화영어교육
지원 중단(수업 연기 불가)

2) 매달 지원중단자에 대한 공석은 대기순위자로 대체
(신규모집 시 대기순위 부여)

금 용



하나SK카드

KLPGA 회원 전용 신용카드(KLPGA 플래티늄)

기간 | 2008년~

혜택 | KLPGA 플래티늄 카드 부가서비스

1) 연회비 : 신규 발급 시 초년도 10만원(~~발급 후
6개월 내 120만 원 이상 사용할 경우
10만원 개설택~~), 이후 2년차부터 연회비 평생 면제

2) 3개월 무이자 할부 : 할부 가능한 전가맹점에서

3개월 무이자 할부

3)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PriorityPassCard 발급)

— 플래티늄 카드에 한해 본인/가족 카드 자동 발급

4) 인천공항 허브 라운지 할인 서비스 :

플래티늄카드 소지 고객 본인 20% 할인

5) 여행상품 할인서비스(지정 예약처 : 02-714-3434)

— 국제선 항공권7%, 국내선5%, 해외패키지7% 할인

6) 발렛파킹 : 인천공항 월 3회(주차비 별도),

특급호텔 월 3회(1일 3시간 무료주차)

7) 특급호텔 : 10~30% 할인 서비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롯데호텔,

밀레니엄 서울 힐튼 등)

8) S-OIL 리터당 50원 할인(LPG제외), 횡수 무제한

— 스피드메이트 엔진오일 교환시 할인(2만 5천 원)

9) 영화 할인 서비스(통합 월 1회) : CGV, 메가박스,

인터파크, 티켓링크 등

10) 놀이공원 할인 서비스(통합 연 4회) :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롯데월드, 대전꿈돌이랜드 등

11) 보험 : 해외여행 최고 5억 원, 휴일교통상해보험

최고 7천5백만 원, 골프용품손해보험

최고 2백50만 원, 홀인원상금보험 50만 원

(정규 파3홀/연 1회)

담당자 | 하나SK카드 플래티늄 고객센터

연락처 | 080-220-5300

※ 2014년 6월 1일 신규 발급분부터 자원금 지급 중단으로 인

하여 초년도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하나SK카드 신규 발급 시에만 초년도 연회비가 청구되며,
기존에 하나SK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들 중 KLPGA 플래티늄
카드를 신청하시면 별도의 연회비는 없습니다.

김기성 세무사

KLPGA 세무서비스 제공

기간 | 2013년 5월 1일 ~

혜택 | KLPGA 회원 및 가족을 위한 양질의 세무서비스
제공, 세무조사 자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기장
대행 및 세무컨설팅, 법인, 부가, 소득, 양도, 상속, 증
여세 신고대행 및 상담

문의 | 김기성 세무사 연락처 | 02) 516-7745

